

2026 벨기에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09
3. 주요 이슈 Pick	14
가. 벨기에, EU 경제회복기금(RRF)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가속화	14
나. 벨기에 방위비 지출 확대 및 방산 분야 투자 확대 전망	15
다. 벨기에, 노동시장 및 사회복지 제도 개혁 추진	1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가. 시장 특징	18
나. 무역	19
다. 산업	27
라. 투자	29
2. 유망 산업	32
가. 배터리 저장시스템(BESS)	32
나. 탈탄소 밸류체인 - 항만 기반 클린테크	34
다. 디지털 및 사이버보안	36
3. 협력 기회	38
가. 한국-벨기에, 방위·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G2G 협력 유망	38
나. '25~'26년 벨기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40
다. 벨기에,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노력	43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5
2. 진출전략	47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55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58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60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61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3. 주요 이슈 Pick	14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 전망(요약)

- '26년 벨기에 경제는 '25년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 GDP 성장률은 0.8%에서 0.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 EU 집행위원회. (OECD) '25년 1% → '26년 1%, (벨기에중앙은행) '25년 1.0% → '26년 1.1%
 - 물가상승률이 2.8%에서 1.8%로 둔화되면서 실질소득 회복에 기여하고,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인하*는 소비 및 투자 여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 * '25.3월과 6월에 각각 기준금리 25bp 인하
 - 유로존 성장률*이 '25년 1.2%에서 '26년 1.0%로 일시 둔화된 뒤, '27년 1.3%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벨기에 수출·투자는 단기적 제약 속에서도 중기적으로 점진적 반등 전망
 - * 유럽중앙은행(ECB, '25.9월). (OECD, '25.6월) '25년 1.0% → '26년 1.2% 전망
- 다만,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과 정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미국 관세로 인해 '25년 위축된 수출이 '26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
 - GDP 대비 재정적자가 '24년 -4.5%에서 '25년 -5.4%, '26년 -5.5%로 확대되고, 부채는 '25년 107.1%에서 '26년 10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지출 여력이 제한될 전망

□ 호재 요인

- '26년 벨기에 경제는 금융·정책 환경에 따른 기회와 물류·산업 허브로서의 유럽 내 전략적 위치를 기반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지면서 기업의 차입 비용이 줄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는 등 금융 여건이 개선될 전망
 - 유럽연합(EU) 차원의 그린·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정책 역시 벨기에가 물류·교통 중심지로서의 입지적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부진 요인

- 반면, 대외 통상 불확실성과 재정 여력 축소는 경기 회복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미국의 對EU 통상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벨기에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회복이 지연되어 성장세를 제약할 가능성
 - 정부 재정적자 확대와 높은 부채 수준은 재정 여력 축소로 경기 대응 여지를 줄이고, 중기적 구조 개혁 추진에도 부담으로 작용
 -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은 기업의 투자심리와 수출 전망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음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인구	백만 명	11.5	11.6	11.6	11.5	11.7	11.7	11.8	11.9
명목 GDP	십억 달러	536.8	529.2	598.9	593.9	645.0	665.0	684.9	706.8
1인당 명목 GDP	달러	41,852	40,247	43,793	48,507	50,781	52,004	53,646	54,910
실질 성장률	%	2.4	-4.8	6.2	4.3	1.2	1.0	0.8	0.9
실업률	%	5.4	5.6	6.3	5.6	5.5	5.7	5.9	5.7
소비자물가 상승률	%	1.3	0.4	3.2	10.3	2.3	4.3	2.1	1.7
재정수지(GDP 대비)	%	-2.0	-9.0	-5.4	-3.6	-4.2	-4.4	-5.0	-5.8
총 수출	백만 달러	451,046	426,353	512,402	634,600	561,990	533,343	533,343	541,343
(對韓 수출)	백만 달러	1,495	1,800	3,801	3,287	2,100	1,660	N/A	N/A
총 수입	백만 달러	432,810	401,986	479,598	622,095	546,064	512,574	514,624	524,402
(對韓 수입)	백만 달러	3,059	3,193	4,926	5,280	5,427	4,653	N/A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18,595	26,913	23,093	12,342	11,838	21,252	18,719	16,941
경상수지	백만 달러	664	4,693	10,981	-7,802	-4,436	-5,672	-7,373	-9,220
환율(연평균)	현자국/US\$	1.13	1.16	1.11	1.05	1.08	1.08	1.11	-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141	155	209	108	187	32	120	180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221	71	-6	-114	294	-262	-50	50

주: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EIU, UN, 세계은행, IMF, Global Trade Atlas, Eurostat, 유럽중앙은행(ECB), 벨기에중앙은행(BNN), 벨기에통계청(StatBel)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4년 1.0%에서 '25년 0.8%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26년에는 0.9~1.0% 수준으로 소폭 반등 예상
 - * EU 집행위원회(OECD) '25년 1% → '26년 1%, (벨기에중앙은행) '25년 1.0% → '26년 1.1%
 - '24년에는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세를 주도했으나, '25년 대외 불확실성과 수출 부진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됨
 - '26년에는 대외 수요 회복과 정책 효과에 힘입어 투자 및 수출이 개선되며 점진적 성장세 강화 전망
- (소비) 실질소득 개선과 물가 안정(disinflation)에도 불구하고, 고용 둔화와 소비자 심리 위축으로 민간 소비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저축률은 '26년에도 약 12.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 여력 부족으로 큰 폭의 확대는 어려울 전망
- (민간투자) '25년 약 +0.5%, '26년 약 +1.2% 수준으로 점진적 증가세 예상(EU 집행위원회)
 - '25년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건설·설비 투자 저조
 - '26년부터는 대외 환경 개선 및 금융 여건 일부 완화, EU 회복·복원력 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지원 등으로 투자 확대 전망
- (산업 생산) '25~'26년 비용 부담 완화와 외부 수요 회복으로 부분적 개선, 다만 일부 산업별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
 - '22~'23년 고용 및 생산 약세로 '24년 산업의 경제 부가가치는 1% 감소하여 3년 연속 위축세 기록, 이는 팬데믹 이전 대비 4.7% 감소한 수치
 - 재고 회복 사이클과 EU 제조업 회복에 힘입어 '25년 EU 산업 생산 1.7% 증가, 벨기에 1.2% 증가하며 반등 국면 진입
 - 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은 에너지·인건비 상승, 관세 불확실성으로 장기적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완만한 회복세 예상
 - 제약 부문은 '23년 급격한 위축 이후 강한 반등, 자동차·기계 공학 부문의 부진 지속 전망
- (대외교역) '25년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수와 글로벌 수요 약세로 부진 지속, '26년 수요 회복과 대외 여건 개선으로 회복 국면 진입
 - '24년 상반기 수출·수입 모두 전년대비 8.0%, 10.6% 동반 감소하여 교역량 위축(벨기에 대외무역청 (Belgian Foreign Trade Agency))
 - '25년 대내외 제약 요인으로 교역의 성장 기여도가 제한적, 특히 미국(벨기에 4위 수출국)의 관세 부과로 의약품, 기계·장비, 운송 부문 등 영향이 클 전망
 - '26년 외부 환경의 완만한 개선에 따라 수출·수입 점진적 반등 예상

- (투자 유입) '24년 벨기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242억 유로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큰 폭 감소. 이는 다국적 기업 내부 자금 이동(대출 상환·회수)에 따른 일시적 통계 효과로 해석
 - 프로젝트 수는 210건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신규 고용은 증가하여 유럽 내 투자유치 경쟁력은 8위 수준 유지
 - 주요 투자국은 미국, 네덜란드 등이며, 아시아에서는 중국·일본 외에 인도가 10대 주요 투자국(8위)으로 진입한 점이 특징
 -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물류 비중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플랜더스 항만·화학·반도체 분야, 브뤼셀은 본사·서비스, 왈로니아는 바이오·제약 투자가 집중
- (투자 진출) '24년 벨기에 순 해외직접투자는 29억 유로*로 전년대비 83% 급감
 - * '24년 해외직접투자액은 29억 유로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Equity 부문 순유출 발생(-196억 유로), Other capital 부문 유입(+226억 유로)에 의해 상쇄된 결과(벨기에중앙은행)
 - 상위 투자 3개국은 영국(46억 유로), 미국(44억 유로), 네덜란드(39억 유로) 순이며, 반면 룩셈부르크(-65억 유로), 홍콩(-9억 유로) 등에서의 투자 감소 폭이 커 전체 투자 규모 축소
 - 분야별로는 금융·중개업(88억 유로), 과학·기술(77억 유로), 서비스(66억 유로) 순이며, 도·소매 유통(-75억 유로), 정보·통신(-27억 유로) 분야는 급감

2. 정치(정책) 환경

- (벨기에) '25년 1월 8개월 협상 끝에 신 연립정부(Arizona) 출범
- (EU) 기업 부담 경감 위한 규제 개혁(옴니버스, Omnibus Package) 추진 중
- (EU) '26년 규제 간소화 지속 및 옴니버스 법안의 입법·시행 전망

가. 정부 현황

□ '25년 1월 벨기에 연립정부(Arizona 연정) 출범

- '24년 6월 총선 이후, 8개월간의 협상 끝에 '25년 1월 우파 민족주의 정당(N-VA)을 중심으로 5개 정당이 참여한 연립정부(Arizona 연정) 공식 출범
 - N-VA 당대표 바르트 드 베버(Bart De Wever)가 총리로 선출되었으며, 총선 이후 예산 삭감, 세금 인상, 연금 개혁 등 N-VA의 주요 정책 기조를 둘러싼 정당 간 이견으로 합의가 지연됨

※ 참고

- 벨기에는 브뤼셀·플랜더스·왈로니아 등 3개 지방정부가 각각 독립적 의회와 정부를 운영하는 연방국으로, 언어·문화 차이뿐 아니라 플랜더스 지역의 자치권 확대 요구가 이어지며 지역 간 갈등 지속
 - (연정 구성) N-VA(플랜더스 보수·민족주의), Vooruit(플랜더스 사회민주당), CD&V(플랜더스 기독교민주당), MR(프랑스어권 자유당), Les Engagés(프랑스어권 중도개혁당)
- 신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원자력 발전 확대, △국방비 증액, △노동·이민 제도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할 예정
 - 특히, '30년까지 국내 재정적자를 EU 기준인 GDP 대비 3%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구조 개혁과 지출 조정을 함께 추진할 계획

'25~'29년 벨기에 신정부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분야	주요 내용
세제	금융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10% 과세, 주택 관련 조세 혜택 폐지, 법인의 해외 이전 과세 등 신규 제도를 마련해 과세 기반 확대
노동·연금	'29년까지 고용률 80% 달성, 실업급여 수급 기간 최대 2년으로 제한, 연금 제도 점진 개혁 (42년 근로 시 60세 조기 은퇴 가능 등)
에너지	기존 탈원전 법안 폐지, 현재 가동 중인 원전 최소 10년 이상 연장, 신규 원전 건설 추진
국방·이민	국방비 증액,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사회보장 혜택 요건 엄격화

자료: 벨기에 정부 홈페이지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벨기에는 EU 회원국이자 3대 유럽 입법기관(EU 집행위원회·EU 이사회·유럽의회)이 위치한 정책 중심지로 EU 정책 및 규제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EU 차원의 동향을 중심으로 기술

□ 기업 부담 경감 위한 EU의 규제 개혁(Omnibus Package) 추진

-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 '25년부터 기존 규제·법령을 통합 및 간소화하는 '옴니버스 법안(Omnibus)' 시리즈를 순차 발표 중*

* 집행위원회, '29년까지 기업 행정 부담을 25~35% 절감하겠다는 목표 제시('25.2.11.)

- 옴니버스의 핵심은 △규제 간소화, △행정 절차 신속화,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 축소로, 현재까지 총 6차례 발표되었으며 '25년 말에는 7번째 패키지(디지털 분야)가 마련될 예정
- '26년에도 이 같은 규제 간소화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 발표된 옴니버스 법안들의 입법·시행이 본격화될 전망

EU의 옴니버스 법안 발표 현황

구분	발표일	내용
옴니버스 I	'25.2.26.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택소노미(Taxonomy) 간소화
옴니버스 II	'25.2.26.	투자 관련 정책 간소화(InvestEU)
옴니버스 III	'25.5.14.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간소화
옴니버스 IV	'25.5.21.	중견기업(SME) 분류 신설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조치 확대
옴니버스 V	'25.6.17.	국방 분야 규제 간소화 및 신규 제도 도입
옴니버스 VI	'25.7.8.	화학산업 관련 정책 및 규제(CLP, 화장품 규정 등) 간소화
옴니버스 VII(예정)	'25년 말	데이터·사이버보안·AI 등 디지털 분야 법령의 절차 간소화 예정
옴니버스(잠정)	'26년 1분기	에너지 제품(Energy product legislation) 관련 제도 간소화
옴니버스(잠정)	'26년 2분기	조세 관련 제도 간소화(Omnibus on taxation)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 ESG 핵심 법령 간소화 개정안 본격 진행 중

- EU는 ESG 옴니버스(Omnibus I, '25년 2월)를 통해 CBAM·CSDDD·CSRD 등 주요 ESG 제도를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며, '26년은 이러한 개정 법안이 확정·시행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될 전망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6.1.1.부 본격 시행 예정
 - (개요) '25.10.17., CBAM* 간소화 개정 규정(EU 2025/2083)이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0월 20일부터 발효됨. '26년부터 개정된 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
 -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EU 2023/956) :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대 수입품 내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 후 EU에 제출하는 규제
 - (추진 경과) 입법 제안('25.2.26.) → 3자 협의 완료(6.18.) → 유럽의회 승인(9.10.) → 이사회 승인(9.29.) → 관보 게재(10.17.) → 발효(10.20.) → 시행('26.1.1.)
 - (주요 내용) 면제 기준 설정, 기본값 요건 완화, CBAM 인증서 관련 일정 연기, 제3자 위임 허용, 탄소 가격 등 기존 규제 요건을 대폭 완화*
 - * 이번 개정으로 기존 CBAM 적용 기업의 약 91%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

CBAM 기존 규정 및 개정법 주요 변동 사항 정리

분야	기존	개정
면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당 150유로* * 적용 대상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누적 총 수입량 50톤* * 적용 대상 품목에서 전력 및 수소 제외
인증서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26년 1월 1일부터), 제출(매년 5.31.), 환매(6.30.), 취소(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27년 1월 1일부터), 제출(매년 9.30.), 환매(10.31.), 취소(11.1.)
인증서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인증서 보유 의무 비율 :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로 완화
배출량 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및 알루미늄의 특정 마감 공정에서 발생한 배출량, △EU-ETS 적용 전구체 생산 배출량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
기본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배출량 확인 불가 시 기본값 사용, 모든 기본값 검증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중 선택 가능. EU가 제공하는 기본값 사용 시 검증 면제

자료: EU 집행위원회 및 EU 이사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 (개요) '25년 2월 제안된 CSDDD* 간소화 개정안에 대한 입법 진행 중
 -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 EU 2024/1760)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인권·환경 분야 실사 이행과 공시를 의무화한 것으로, '24년 7월 발효 후 '27년부 시행
 - (추진 경과) 입법 제안('25.2.26.) → 이사회 입장 채택('25.6.21.) → 유럽의회 입장 마련 중
 - (주요 내용) 실사 범위, 기후 전환 계획, 민사책임 조항, 실사 모니터링 주기 등이 완화되었으며, 최종 규제 수준을 두고 EU 입법기관 간 입장 조율 중

CSDDD 기존 지침 및 개정안 주요 변동 사항 정리

분야	기존	집행위원회 개정안
실사 범위	• 기업·자회사·직접 협력사·간접 협력사	• 실사 의무 대상에서 간접 협력사 제외* * 객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실사
실사 주기	• 매년 시행	• 5년 단위
기후 전환 계획	• 기후 전환 계획 채택 및 이행 의무	• 채택만 의무, 이행 여부는 기업 자율
민사책임	• EU 차원으로 일원화 집행	• 회원국별 기업의 책임 판단 결정
벌금	• 전 세계 연간 순 매출의 최대 5% 설정	• 삭제(추후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중소기업 보호	-	• 직원 수 500명 미만 협력사에는 정보 요구 수준 제한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 (개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개정과 병행해 CSRD* 개정안도 함께 추진 중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EU 2022/2464) : 기업의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23년 1월 발효 후 '25년부터 단계적 적용 중

- (추진 경과) 입법 제안('25.2.26.) → 이사회 입장 채택('25.6.21.) → 유럽의회 입장 마련 중
-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기업 범위 및 보고 의무 축소, 보증 수준 완화, 중소기업 요청 정보 제한 등

CSRD 기존 지침 및 개정안 주요 변동 사항 정리

분야	기존	집행위원회 개정안
적용 기업 (역내)	• 250명 초과, 순 매출 5천만 유로 초과, 자산 2,500만 유로 초과 중 2개 이상 해당 기업	• 직원 수 1,000명 초과 및 순 매출 5천만 유로 기업 또는 자산 2,500만 유로 초과 기업
적용 기업 (역외)	• 역내 연 매출 1.5억 유로 초과, 지점(branch) 매출 기준 4천만 유로 초과	• 역내 연 매출 4억 5천만 유로, 지점 매출 기준 5천만 유로 초과
보고 범위	• 모든 협력사의 데이터 포함	• 협력사에 요청할 수 있는 데이터는 자발적 보고 기준(VSME*)으로 한정 * Voluntar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Es

자료: EU 집행위원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 기업 ESG 사례 : 유미코아(Umicore)

- 벨기에 글로벌 화학소재 기업인 유미코아는 친환경 전환, 책임 있는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측면에서 대표적인 ESG 모범 사례로 평가됨. 동사는 기후 전환 계획을 수립해 '30년까지 Scope 1·2 배출량을 '19년 대비 50% 감축할 예정이며, 공급망 탈탄소화를 위해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 강도를 42% 줄이는 등 책임 있는 소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25년 1월 기준, ESG 리스크 평가기관 Sustainalytics는 동사를 화학 산업 평가 대상 기업 571개사 중 97위로 평가했으며, 이는 동일 산업 내 우수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 줌

□ 화학물질 규제 강화 및 제도 간소화

- EU는 화학 옴니버스(Omnibus VI, '25년 7월)를 통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유해 물질 관리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 관리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26년에는 REACH 등 주요 규제 개정안이 발표되고, 이미 제안된 개정안들은 이행 단계에 돌입할 전망

• 화학물질의 분류·라벨·포장 규정(CLP*)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chemical substances and mixtures(EU 2024/2865)

- (옴니버스 내용) 라벨링·광고 요건의 일부 항목 완화, 적용 시기 연장 등
 - ▶ 소형 포장에는 간소화된 라벨 요건 적용, 공급사 연락처를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 가능
 - ▶ 소비자 대상 광고 시 의무적 위해성 정보 표시는 삭제되고, 대신 '제품 사용 전 정보를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로 대체
 - ▶ 라벨 및 광고 요건 적용 시기를 '26년 7월 → '28년 1월로 연기
- (물질 규제 강화) CLP 규정을 현대화한 개정안 '24년 12월 10일부 발효
 - ▶ 내분비 교란·잔류성·이동성 물질에 대한 신규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물질은 위험 물질 표시 의무 적용
 - ▶ 원거리 판매 화학물질, 리필 스테이션에서 판매되는 제품, 포장재 없이 판매되는 리필 제품으로 적용 대상 확대
 - ▶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무독성 여부 등 소비자 정보 제공 의무화

• 화장품 규정(CPR*)

* Cosmetic Products Regulation(EC) No 1223/2009

- (옴니버스 내용) 유해 물질의 조건부 사용 허용, 나노물질 신고 절차 간소화
 - ▶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CMR) 분류 물질은 예외적인 경우* 사용 허용
 - * CMR(Carcinogenic·Mutagenic·Toxic for Reproduction) 물질 중, △대체제 부재, △안전성 입증, △물질 노출 경로가 경구·흡입인 경우
 - ▶ 나노물질의 사전 신고 의무 폐지, 일반 제품과 동일하게 단일 신고 가능
- (물질 규제 강화) '25년 9월부터 21종의 CMR 물질 사용이 금지되며, 현재 화장품 규정의 전면 개정 작업 검토 중임. '26년에 평가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
 - ▶ 금지 물질에는 TPO(네일 제품 함유 물질) 등이 포함되며, 세부 목록은 EU 집행위원회 규정 부속서 참고 바람(<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25R0877&qid=1763517661035>)
 - ▶ 현재 EU는 화장품 규제에 대한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26년 2분기까지 관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으로 개정 가능성 주시 필요
 - * '25년 2~3월 화장품 규정 개정 관련 공공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지난 10년간의 현 규제 이행에 대한 평가 진행 중

• 과불화화합물(PFAS*)

* Per-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1만여 종의 합성 화합 물질로, 전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높은 위해성으로 인해 유해 물질로 분류

- EU 역내 PFAS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현재 영향 평가가 진행 중이며 '26년 중 규제 초안 발표 예정
 - 현재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입법을 위한 영향 평가를 수행 중이며, 소비재 내 사용은 제한하되 대체재가 없는 산업 응용 분야는 조건부 허용될 전망
- 다만, PFAS가 광범위한 산업에서 필수 물질로 사용되는 만큼 EU 차원의 규제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 차원의 개별 규제가 확산되는 추세
 - 현재 네덜란드('24년 12월), 독일('25년 1월), 프랑스('26년 1월), 덴마크('26년 7월) 등이 EU 규제 마련 전 자체 규제 시행 또는 예정
 - 벨기에 역시 장뤽 크룩(Jean-Luc Croke) 기후 장관이 국내 PFAS 규제안을 곧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25.9.2.)

EU 회원국 PFAS 규제 현황

국명	주요 내용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스키 왁스, 의류용 섬유 등 일부* 소비재 내 PFAS 사용 금지 * 프라이팬 및 냄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처벌 규정(Chemikaliensanktionsverordnung)* 강화안 '25.1.18. 발효 * 기존 화학물질 처벌 규정을 개정. POPs 규정상 금지 물질 사용 시 징역 또는 최대 5만 유로의 벌금 부과 가능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7월 1일부터 제품 무게 1kg당 50mg 이상 PFAS가 함유된 의류·신발 수입 및 판매 금지

자료: Politico, Euractiv 등 현지 언론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 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REACH*) 개정안 '26년 발표 예상

-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로, EU 시장에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시 등록·평가·허가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로 '06년 도입
- 제도 도입 후 약 20년이 경과했지만, 유독성 물질 사용이 지속되고 있어 환경·인체 보호 차원에서 포괄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됨
- 다만, 러·우 사태 장기화 및 높은 에너지 비용 등으로 산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도 개편은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로 입법 지연*
 - * 당초 EU는 '22년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산업계 반발로 연기됨
-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사용 촉진, △행정 부담 완화, △인체·환경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 REACH는 완제품에 포함된 모든 화학물질에도 적용되므로, 추후 입법 동향 주시 필요

3. 주요 이슈 Pick

가. 벨기에, EU 경제회복기금(RRF)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 가속화

□ EU의 '26년 RRF 지급 마감 일정에 맞춰 회원국 관련 프로젝트 이행 가속화

※ 참고 : EU의 경제회복기금(RRF,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 (개요) EU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극복하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위해 총 7천5백억 유로 규모('18년 물가 기준)의 경기 부양책 NGEU(NextGenerationEU)를 발효
- (주요 내용) 경제회복기금인 회복 및 복원력기금(RRF)은 NGEU의 핵심 요소로 보조금과 대출로 구성, 회원국들은 성과 기반 지급 시스템인 RRF를 받기 위해 집행위에 회복·복원력 계획(NRRP)을 제출하고, 이에 명시된 개혁과 투자 목표 이행을 통해 집행위원회에 자금을 요청할 수 있음
- (추진 일정) 회복 및 복원력기금 규정 발효('21.2.18.) → 국가별 회복복원력 계획(NRRP) 마감('21.4.30.) → 집행위원회, NRRP 평가 승인 및 사전 자금 지원 개시('21.8.) → 집행위원회, 에너지 위기 대응 NRRP 지침 업데이트('23.2.1.) → 집행위원회, RRF 중간평가 발표('24.2.21.) → 회원국별 최종 목표 달성 및 지급요청 마감('26.9.30. 예정) → 집행위원회, RRF 지급 완료('26.12.31. 예정)

- 벨기에, 관련 목표 이행을 절반 미만, '26년 3분기까지 사업 가속화 전망
 - EU의 RRF는 '26년 말 집행 완료 예정, 벨기에를 포함한 모든 회원국은 '26년 9월 30일까지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EU 집행위원회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함
 - 벨기에에 할당된 RRF는 보조금 50억 3천만 유로, 대출금 2억 4천만 유로 규모로 보조금 29억 7천만 유로, 대출금 1억 336만 유로가 집행됨('25.10.30. 기준)
 - 집행위원회 집계 기준, 벨기에의 개혁·투자 목표 이행률은 44%로 남은 RRF 지급을 위해 벨기에에는 '26년 9월 30일까지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전망
- 주요 프로젝트
 - 벨기에에는 RRF를 통해 총 129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수소, 해상풍력 등의 에너지 전환과 광케이블 설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디지털 전환, 운송 인프라 개선 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다수 포함
 - * 지속가능성(35%), 디지털 전환(16%), 운송(20%), 사회 결속(13%) 및 경제 혁신(16%) 등 전체 프로젝트와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공식 웹사이트 참조(링크)
 - 특히 재생 가능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해상풍력 타워용 강철을 생산하는 등 에너지 전환 및 산업 탈탄소 프로젝트 다수
- RRF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향후 추가적인 투자 가능성에 유의
 - 이미 관련 프로젝트들의 입찰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관련 인프라 산업의 특성상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 전망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RRF 추진 가속화를 위해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유연화(6.4)
- 특히 에너지 전환, 사이버보안 강화는 EU의 전략 산업 분야로, 이번 RRF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 확대 가능성에 유의하여 협력 가능성 모색 필요

나. 벨기에 방위비 지출 확대 및 방산 분야 투자 확대 전망

□ 벨기에, NATO 방위비 증대 합의에 따라 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전망

- 벨기에, 군사력 및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 발표
 - NATO,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35년까지 5%*로 확대하는 데 합의('25.6.25.)
* 무기병력 등 순수 국방 분야 3.5%, 안보·국방 관련 핵심 인프라 투자 1.5%가 포함
 - 벨기에에는 기존의 군사력 증강 계획 STAR Plan을 개정한 Strategic Vision 2025를 발표('25.7.18.)하고 '26~'34년 동안 총 국방 예산을 1,390억 유로로 확대, F-35 전투기 11대 도입, 1,500대 이상의 장갑차 도입 추진
 - Strategic Vision 2025는 원정 임무가 아닌, 전쟁 억제 및 고강도 전쟁 수행을 위한 계획으로 현재 병력의 1/3 증원 및 인공지능, 드론 및 방공 체계, 전자전, 우주 기반 감시 체계 등 방위산업의 주력 혁신 분야를 수립
- EU, 회원국 안보방위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
 - EU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방위·안보 산업의 부흥과 회원국의 방위비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EU 방위백서 Readiness 2030 발표('25.3.19.)

※ 참고 : EU의 Readiness 2030

- (개요) EU 집행위원회가 '25년 3월 19일에 발표한 '30년까지의 EU 방위 강화 계획이 담긴 방위백서로, EU는 회원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EU 재정 준칙(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개정, EU 공동 조달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 SAFE 등을 통해 최대 8천억 유로의 군사비를 동원할 계획
- (EU의 재정 준칙 유연화) EU는 재정 준칙인 안정과 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의 재정적자를 GDP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강제. 하지만 EU 이사회는 지정학적 변화에 의한 국방 강화의 예외적인 필요성으로 '29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방 관련 투자에 대해 GDP의 1.5%까지 추가 재정 적자 허용에 합의
- (SAFE, Security Action for Europe, 유럽안보행동기금) SAFE는 유럽방위백서와 함께 발표된 방위 분야 조달을 위한 신규 재정 도구로 EU는 EU 예산 1,500억 유로를 각 회원국의 방위 장비 공동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대출 형태로 지원, 이는 재정 여력이 상이한 회원국들의 공동 구매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복 조달 방지 및 신속한 전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 EU 이사회, 벨기에를 비롯한 15개 회원국*의 재정 준칙 유연화 승인('25.7.8.), 추가적인 재정 여유로 벨기에는 '35년까지 국방비 GDP 5% 지출 목표
 - *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 한편, 벨기에를 비롯해 19개국*은 EU 회원국 간 방위 장비 공동 조달을 위해 SAFE 대출 신청, '25.11.30.까지 상세 구매 계획 및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
 - *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 관련 기업은 방위 장비 공동 조달이나 기술 협력 등 진출 가능성 모색 필요
 - SAFE는 비EU 국가의 조달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나, EU와 안보방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는 35%까지 조달 참여 가능. 한국은 EU와 '24년 11월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상태
 - 각 회원국은 '25년 11월 30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서 제출 및 참여를 위한 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SAFE 외 회원국의 무기 구매에는 별도 기한 제한이 없음
 - 향후 10년간 벨기에 국방비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연구 혁신, 조달 참여 등 진출전략 수립 필요

다. 벨기에, 노동 시장 및 사회복지 제도 개혁 추진

□ 벨기에, 근로시간 유연화와 세제 혜택 확대를 통한 노동 시장 환경 개선 노력

- 벨기에 연방정부, 노동 시장 개선 정책(Summer Agreement)에 합의('25.7.21.)
 - 연방정부 합의안에는 연 최대 360시간까지의 자발적 초과 근무 허용* 및 파트타임 근로자의 최소 근로 시간 요건 폐지**, 야간 근무 제한 해제*** 등 포함
 - * 연 최대 360시간까지 초과 근무 가능 및 그중 240시간에 대한 초과 수당은 세금 면제
 - **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는 정규 근로 시간의 최소 1/3 근로가 의무였으나, 최소 의무 제거
 - *** 20~06시 야간 근무 금지 원칙 해제, 유통·전자 상거래 분야는 야근을 자정~05시로 정의
 - 또한 신규 채용 시 첫 6개월 내 해고 통지 기간을 최소 7일로 설정하는 수습 제도 도입을 위해 노사 관계자들과 논의 중
 - 한편 무기한 지급되던 실업급여 기간을 최대 24개월로 제한하고, 이후로는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해 실업급여가 아닌 수당을 신청하도록 제도 개편
- 벨기에의 노동 및 고용 시장 유연화 확대 기대
 - 이번 합의를 통해 유통, 전자상거래, 물류, 제조업과 같이 교대, 야간조 등 근무 시간에 변동성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시장의 인력 활용 유연성 제고와 인건비 부담 완화가 기대됨
 - 또한 자발적 초과 근무 시간이 확대되면서 요식업계는 성수기와 같이 인력 수요 급증에 대한 고용 유연화 및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A stylized world map composed of white dots on a blue background, spanning the entire page. The map is centered and shows the outlines of the continents.

Ⅱ.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18
2. 유망 산업	32
3. 협력 기회	38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EU 주요 기관과 NATO 본부가 위치한 유럽의 정책 중심지로, EU 산업·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한 전략적 입지 조건을 보유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를 기반으로 EU 시장 진출의 관문 역할을 수행,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 역내에서 높은 연결성 보유
- 화학,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해 글로벌 협력 수요가 높으며, 기술·산업 분야에서의 성장 잠재력과 진출 유망성이 높은 시장 환경

가. 시장 특징

□ 주요 특징

- 유럽 정치의 중심지
 -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은 유럽연합(EU)의 주요 기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본부가 위치하여 유럽의 주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유럽의 수도'라는 위상을 지님
 - 특히, 브뤼셀에는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유럽의회 등 주요 정책 입안·결정 기관이 모두 위치해 있어, 산업 정책과 규제 방향이 결정됨. 이러한 제도적 중심성으로 인해 산업협회와 로비 단체가 브뤼셀에 집중되어 있으며, EU의 신규·개정 정책과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기에 유리한 환경

□ 구매력, 소비 성향

- 브랜드·품질 중심의 구매, 에너지 효율 및 친환경 제품 선호
 - 벨기에인들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브랜드를 선호하며, 충동구매보다는 품질과 기능을 중시하는 편임
 - 에너지 가격 급등 이후 에너지 효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전기자동차·전기자전거 등 친환경 제품 수요가 증가했으며, 식품·화장품·생활용품 전반에서 유기농 제품과 생분해성 포장재에 대한 선호 확산

□ 주요 인증

- CE(Conformité Européenne) 인증
 - CE 인증 제도는 '93.7.22. 도입된 EU 시장 내 안전에 관련된 필수 인증으로, 제품이 안전·건강·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EU 규정·지침 및 유럽 표준 규격의 필수 요건을 준수함을 의미
 - CE 인증은 주로 전기·전자 제품(가전제품, 컴퓨터, 조명기기 등), 기계류(산업용 기계, 건설 장비 등), 장난감,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 해당 시장의 전략적 가치

- 세계 최대 단일 경제권 EU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시장
 - 벨기에는 독일·프랑스·네덜란드와 같은 유럽 주요 국가와 인접해 유사한 문화와 언어를 공유하며, 우수한 인력과 잘 발달한 물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어 유럽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함
 - 내수시장은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하나, 화학·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발달하여 해당 분야로의 수출입, 투자 및 다양한 기술·산업 협력의 기회가 존재함

나. 무역

□ 수출 및 수입 동향

- (개괄) '24년 벨기에의 수출 규모는 5,135억 달러, 수입 규모는 5,049억 달러로, 8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 기록
 - 전년대비 수출은 9.5%, 수입은 9.2% 하락했으며, 무역수지 흑자 폭은 감소

벨기에 역외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누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역외수출	568	-9.3	514	-9.5	188	-3.1
역외수입	556	-9.4	505	-9.2	177	-4.8
무역수지	12	-5.8	9	-25.0	11	37.5
총 교역	1,124	-9.3	1019	-9.3	365	-3.9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20. 기준)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주요 수출국 및 수출 품목

- (수출국) '24년 벨기에 최대 수출국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순이며, 수출 상위 3개국이 전체 비중의 약 44.4% 차지

- EU 역외 주요 수출국은 미국, 영국, 중국 순이며 3개국으로의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14.2% 수준
- 對한국 수출 비중은 0.45%로 '23년 대비 0.05%p 감소

* 벨기에의 전체 수출국 중 한국의 순위는 36위('23년)에서 33위로 소폭 상승

벨기에 상위 10대 수출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명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률	2024년 수출액 비중
1	독일	105	93	-11.4	18.1
2	네덜란드	74	68	-8.1	13.2
3	프랑스	76	67	-11.8	13.1
4	미국	36	34	-5.6	6.7
5	영국	32	30	-6.3	5.8
6	이탈리아	28	24	-14.3	4.8
7	스페인	18	17	-5.6	3.4
8	폴란드	15	15	-	2.8
9	스웨덴	10	9	-10.0	1.8
10	중국	9	8	-11.1	1.7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20. 기준)

- (수출 품목) 주요 수출 품목은 의약품, 광물성 연료, 운송장비, 기계류 등
 - 벨기에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69.1%를 차지
 - '23년에 비해 화학공업 생산품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화학 산업 경기 둔화가 주 원인

'24년 벨기에 상위 10대 수출 품목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출 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2024년 수출액 비중
1	30	의약품	78	-4.9	15.2
2	27	광물성 연료	60	-15.5	11.6
3	87	운송장비	59	-7.8	11.4
4	84	기계	35	-5.4	6.8
5	39	플라스틱	32	-3.0	6.2
6	29	유기화합물	25	-16.7	4.9
7	85	전자기기	21	-	4.1
8	72	철강	20	-4.8	3.8
9	38	화학공업 생산품	14	-48.1	2.7
10	71	귀금속	12	-25.0	2.4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20. 기준)

□ 주요 수입국 및 수입 품목

- (수입국) 수입 비중 역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상위 3개국으로부터 수입이 '24년 벨기에 전체 수입의 약 43.1% 차지
 - EU 역외 국가로부터 수입은 미국·중국·영국·일본이 약 18.8%를 차지하며, 對한국 수입 비중은 0.9% 수준
 - * 전체 수입국 중 한국의 순위는 '23년 대비 1순위 상승하여 18위 차지

벨기에 상위 10대 수입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국명	2023년	2024년	전년대비 증감률	2024년 수출액 비중
1	독일	104	104	-	20.7
2	네덜란드	66	62	-6.1	12.3
3	프랑스	56	51	-8.9	10.1
4	미국	39	34	-12.8	6.7
5	중국	36	32	-11.1	6.4
6	아일랜드	22	20	-9.1	4.0
7	이탈리아	20	19	-5.0	3.8
8	영국	22	18	-18.2	3.5
9	스페인	18	13	-27.8	2.6
10	일본	12	11	-8.3	2.2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20. 기준)

- (수입 품목) 주요 수입 품목은 광물성 연료, 의약품, 운송장비, 기계, 전자기기 등으로 수출 품목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
 - 벨기에 상위 10대 품목의 수입액은 총 수입에서 71.1% 차지
 - 주요 품목의 수입 규모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광학은 소폭 상승했으며(+7.1%), 벨기에 광섬유 기반 초고속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이 과거 25%에서 '24년 약 31%까지 확대된 데 따른 수요 증가 영향으로 분석

'24년 벨기에 상위 10대 수입 품목

(단위: 십억 달러, %)

순위	HS 코드	품목명	수입 규모	전년대비 증감률	2024년 수출액 비중
1	27	광물성 연료	78	-13.3	15.6
2	30	의약품	63	-11.3	12.6
3	87	운송장비	63	-8.7	12.4
4	84	기계	37	-2.6	7.4
5	85	전자기기	30	-16.7	5.9
6	29	유기화합물	27	-22.9	5.3
7	39	플라스틱	20	-4.8	4.0
8	90	광학	15	7.1	2.9
9	72	철강	14	-6.7	2.7
10	38	화학공업 상품	11	-50.0	2.3

자료: Global Trade Atlas('25.10.20. 기준)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25년 1~9월 한국의 對벨기에 수출은 약 29억 달러, 수입은 약 11억 달러로 18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對벨기에 수출 순위는 30위
 - 한-벨 교역은 전통적으로 흑자를 보여 왔으며, 한국의 對벨기에 주요 수출 품목은 건설중장비, 수입 품목은 의약품으로 '24년에 이어 부동의 1위 유지

한-벨기에 연도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월
수출	4,438(61.2)	5,029(13.3)	5,025(-0.1)	4,308(-14.3)	2,996(-9.2)
수입	3,424(120.7)	3,130(-8.6)	1,944(-37.9)	1,537(-20.9)	1,119(-6.2)
무역수지	1,014(-15.6)	1,900(87.4)	3,081(62.2)	2,771(-10.1)	1,876(-32.3)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20. 기준)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韓 주요 수출 품목) 건설중장비, 전기자동차, 화물선, 윤활유, 의약품, 기타 축전지가 주로 수출되었으며, 화물선 및 기타 합성수지의 수출 소폭 상승

한국의 對벨기에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	4,308	-14.3		총 수출	2,996	-9.2
1	건설중장비	446	-42.4	1	건설중장비	517	43.5
2	의약품	418	18.3	2	전기자동차	244	55.5
3	전기자동차	234	-21.5	3	화물선	138	84.4
4	윤활유	215	25.5	4	윤활유	137	-13.8
5	기타 축전지	192	-32.3	5	의약품	118	-66.9
6	하이브리드 자동차	192	-32.3	6	기타 합성수지	113	92.8
7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163	-28.6	7	폴리프로필렌	93	5.2
8	화물선	150	-28.6	8	불꽃점화식 1,500cc 이하	88	-31.5
9	기타 석유화학제품	126	-25.8	9	하이브리드 자동차	86	-37.0
10	폴리프로필렌	123	7.9	10	기타 축전지	72	-61.9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20. 기준) / 주: '25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韓 주요 수입품목) 의약품, 백금, 하이브리드 자동차, 초콜릿, 감자, 사진 영화용 재료, 정밀화학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는 중이며, 정밀화학 제품은 '25년 9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46% 이상 수입 증가

한국의 對벨기에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9월(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입	1,537	-20.9		총 수입	1,119	-6.2
1	의약품	397	-29.5	1	의약품	317	-4.2
2	백금	86	-39.5	2	백금	73	15.3
3	하이브리드 자동차	84	74.4	3	하이브리드 자동차	62	8.8
4	사진 영화용 재료	56	-3.8	4	초콜릿	43	61.6
5	기체 펌프	46	12.9	5	감자	36	11.2
6	초콜릿	45	24.1	6	사진 영화용 재료	34	-20.8
7	돼지고기	42	-1.5	7	정밀화학 원료	34	27.6
8	감자	42	-8.0	8	정밀화학 제품	34	146.0
9	기타 금속광물	36	80.5	9	석유화학 제품	30	-0.4
10	정밀화학 제품	35	-10.3	10	돼지고기	27	-19.3

자료: 한국무역협회('25.10.20. 기준) / 주: '25년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 한국의 벨기에 내 수출 시장 위상

- (건설중장비) 건설중장비는 '24년에 이어 '25년 9월까지 2년 연속 한국의 對벨기에 전체 수출 품목 중 1위 차지
 - ▶ 또한, Volza's Belgium Export data에 따르면 벨기에의 건설중장비 전체 수입 중 한국은 중국, 미국에 이어 3위를 기록
 - ▶ Research and Markets 벨기에 건설장비 시장 심층리포트에 따르면 벨기에의 건설중장비 시장은 '24년 기준 약 12,704대 규모로, '30년까지 연평균 약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한국산 중장비에 대한 꾸준한 수요 확대 전망
- (전기차) '24년 기준 전기차가 한국의 對벨기에 전체 수출 품목 3위 차지
 - ▶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벨기에 내 전기차 시장이 '24년(127,500대) 기준 전년대비(93,285대) 구매율이 37% 상승했으며, 최초로 당해연도 전체 차량 등록 중 절반 이상(52.3%) 차지
 - ▶ 특히 현대 아이오닉(16,592대)과 기아 EV3(7,060대)가 '24년 기준 유럽 시장 내 큰 인기를 끌면서 대량 판매

□ 벨기에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벨기에 진출전략 : 기업 A사(현지 J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바이어는 이탈리아 및 동유럽, 중국 제품 등을 취급한 경험이 있었으나 가격 및 품질 면에서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던 반면, 한국 제품의 경우 이미 해당 업계에서 우수한 품질·가격경쟁력 보유 및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인식
 - 국내 제품의 경우 좋은 원자재 사용과 오랜 기간 쌓아온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국을 비롯한 경쟁사 제품 대비 소형 및 대형 제품 모두 고르게 우수한 품질을 보유한 점도 강점으로 작용
- 필수 인증 : CE 인증
- 성약 소요 기간 : 약 6개월 소요
 - '24년 11월 해외 비즈니스 출장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을 통해 1월 잠재 바이어 발굴 및 상담을 주선했으며 3월에 테스트용 1차 오더, 5월에 2차 오더 수주
- 바이어 발굴 경로 : 현지 유료 사이트, 관련 협회, 무역관의 기존 보유 자료를 통해 유선 및 이메일 개별 연락하여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한국과 거래가 처음인 유럽 바이어의 경우 대면 상담을 통해 제품 및 거래 조건에 만족하더라도 역외거래에 따른 복잡한 통관 절차 및 상대적으로 긴 배송기간으로 인해 비즈니스를 꺼리는 경우가 있음
 - 이에 바이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품질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도록 초기 오더에 한 해 무상으로 제품을 테스트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만족 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무역관에서도 원활한 통관을 위해 통관서류 작성 및 오더 수령까지 전방위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성공 사례로 보는 벨기에 진출전략 : 기업 B사(현지 BH사에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K-드라마 '화려한 날들', '신데렐라 게임', '독수리 5형제를 부탁해' 등 다수의 작품 속 협찬 화장품으로 등장했으며, 이를 통해 드라마 팬들과 해외 시청자 사이에서 K-뷰티 브랜드로서의 인지도를 빠르게 높임
- 필수 인증 : CPNP
- 성약 소요 기간 : 약 6개월 소요
- 바이어 발굴 경로 : B사와 함께 파리 재팬 엑스포 참가 → 엑스포장에서 프랑스 대형 백화점 BH사의 한류 특별전 홍보 포스터 확인 → 한류 특별전에 참가한 한국 입점 업체를 통해, BH사가 한류 특별전을 한 달 더 연장하며 신규 한국 화장품 브랜드 발굴 진행 중이라는 정보 입수 → BH사에 직접 연락하여 팝업스토어 입점에 성공, 판매 및 홍보 이벤트 진행 → 팝업스토어 운영을 계기로 프랑스 드럭스토어 체인과 연결되어 납품 가능성 확인 후 미팅 진행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유럽 진출에는 제품 경쟁력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함
 - 다만, 그 외에도 초기 샘플 배송과 바이어들의 소량 주문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수입·통관 업체 발굴이 중요
 - B사는 유럽 진출 초기 단계에서 수입·통관·창고 보관 등의 업무를 브뤼셀무역관을 통해 진행하면서 단기간 내 성약 발생 가능

□ 주요 경쟁국 수출입 동향(Global Trade Atlas)

- '24년 벨기에의 수출 대상국 중 한국은 34위, 중국 10위, 일본 21위 차지
 - (중국) 벨기에의 對중국 전체 수출 규모는 '24년 85억 3,068만 달러로, '23년(88억 5,644만 달러) 대비 3.7% 감소
 - ▶ 유기화합물(27.6%), 운송장비(14.3%), 광학(12.2%), 전자기기(10.5%), 화학공업 생산품(7.9%) 등 중국으로 주요 수출품의 수출액이 '23년 대비 대폭 증가
 - ▶ 벨기에의 對중국 수출 상위 품목은 매출액 기준 의약품이 26.6%로 가장 높으며, 뒤를 이어 원자로·보일러·기계류(13.0%), 플라스틱(8.4%), 광학기기(7.3%), 유기화합물(6.1%) 순
 - (일본) 벨기에 對일본 전체 수출 규모는 '24년 42억 2,707만 달러, 이는 '23년(51억 8,007만 달러) 대비 18.4% 감소. 이는 '22년 50.9% 급락에 이어 추가 하락세가 이어진 것
 - ▶ 의약품 수출액은 '23년(28억 1,681만 달러) 대비 31.7% 하락했으나, 의약품은 여전히 對일본 수출 품목 중 1위
 - ▶ 벨기에의 對일본 수출 상위 품목은 매출액 기준 의약품(45.5%), 뒤를 이어 원자로·보일러·기계류(7.5%), 광학기기(6.6%), 유기화합물(5.8%), 운송장비(5.0%) 순

- '24년 벨기에 수입 대상국 중 한국은 18위, 중국 4위, 일본 11위 차지
 - (중국) 벨기에의 對중국 전체 수입 규모는 '24년 348억 1,097만 달러로 전년대비('23년 360억 4,462만 달러) 3.4% 하락
 - 벨기에의 對중국 수입 품목 중 운송장비가 21.2%, 전자기기 21.0%,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3.0%, 유기화합물 4.5%, 가구·침구류 4.1%로 상위 5개 품목이 對중국 전체 수입의 63.8%를 차지
 - 상위 4개 품목은 전부 수입액이 크게 하락한 반면, 가구·침구류는 15.7% 상승
 - (일본) 벨기에의 對일본 전체 수입 규모는 '24년 110억 94만 달러로 전년대비('23년 119억 756만 달러) 7.6% 하락
 - 전체 수입액 중 운송장비가 6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원자로·보일러·기계류 11.0%, 광학기기 4.4%, 전자기기 3.9%, 플라스틱 3.2% 순
 - '24년 기준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수입액의 84.7% 차지

□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장벽

- 벨기에는 EU 회원국으로 EU의 통상 규제를 따르며 별도의 수입 규제 및 비관세 장벽은 없음
 - EU는 對한국 수입 규제 총 12개의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와 2건의 세이프가드를 시행 중
 - (품목별) 철강/금속 5건, 화학 3건, 플라스틱/고무 2건, 기타 2건
 - (반덤핑 관세) 철강제관류연결구류(32.4~44%), 경량감열지(10.3%), 중량감열지(15.8%), 규소 방향성 전기강판(22.5%), 고용성수지(13.4~18.8%), 실리콘 메탈(16.8%, 중국산 우회덤핑), 철강 로프 및 케이블(60.4%, 중국산 우회덤핑), 에폭시 수지(조사 중), ABS 수지(조사 중), 테레프탈산(조사 중)
 - (세이프가드) 역외산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해 연간 수입한도를 1,830만 톤으로 줄이고(기존 대비 약 47% 축소)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상향하는 제안 발표('25.10.7.), 역외산 특정 합금 원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개시('24.12.19.~)
 - * 망간 및 실리콘 기반 합금(manganese and silicon-based alloying elements)
 - (비관세 장벽) CE 마크, CE-RoHS, CE-MDR, IVDR 인증, CPNP, E-Mark, REACH, 에너지 라벨링 등
 - (CE 마크)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안전 관련 필수 인증으로 완구류, 저전압기기, 의료기기, 선박용품, 기계류, 통신단말기, 건축자재, 개인보호 장비 등 광범위한 공산품에 적용
 - (RED) 인터넷에 연결되는 라디오 장비, 개인 데이터 처리 장비 등은 설계·개발 문서화가 추가로 요구되며 CE 적합성 평가에 반영
 - (CE-RoHS) 전기·전자제품 내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납, 수은 등의 유해 물질이 규제치 이상 포함된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금지
 - (CE-MDR) EU 내에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획득해야 하는 필수 인증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기기 추적성 및 투명성 개선을 위해 기존의 의료기기 지침을 강화
 - (IVDR 인증)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지침을 규정으로 강화

- ▶ (CPNP) EU 역내 유통되는 화장품은 책임자를 지정하여 화장품 등록 포털(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제품에 대한 정보 등록 의무
- ▶ (E-Mark) 승용차, 상용차, 트레일러 등 자동차에 대한 EU 적합성 준수 마크로 역내에 제품 출시 전에 EU 회원국으로부터 승인 필수
- ▶ (REACH) 유럽화학물질관리법으로 역내 생산 및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규정
- ▶ (에너지 라벨링) 소비자에게 에너지 효율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조명기기,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 등의 에너지 사용 제품에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기한 라벨 부착

다. 산업

□ 벨기에 산업의 전체 수출 동향

- 벨기에는 '23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수출 비중에서 상위 5위 산업의 변동성이 없음
 - 의료·제약은 전체 수출 비중에서 3년 연속 1위를 했으며, 꾸준히 상승세 유지
 - 그 외, 에너지·석유화학,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은 꾸준히 2~3위를 지켰으며, 상위 3위 업계가 전체 수출 비중의 약 37% 차지

(참고) 최근 벨기에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상반기)		
HS	산 업	비 중	HS	산 업	비 중	HS	산 업	비 중
30	의료·제약	14.4	30	의료·제약	14.6	30	의료·제약	14.7
27	에너지·석유화학	12.5	27	에너지·석유화학	11.1	87	자동차 업계	10.6
87	자동차 업계	11.2	87	자동차 업계	10.9	27	에너지·석유화학	10.0
84	제조업·플랜트	6.5	84	제조업·플랜트	6.6	84	제조업·플랜트	7.3
39	플라스틱	5.9	39	플라스틱	5.9	39	플라스틱	6.0

자료: Global Trade Atlas('25.8.29. 기준)

□ 의료·제약 업계 산업 동향

- (시장규모) '25년 기준 의료·제약 업계는 84억 달러 규모 수준이며, '30년까지 연평균 5.87% 성장 전망
 - 시장 확대의 주요 요인은 높은 의료 지출, 강력한 보험 보장, 수출 중심 산업 구조, 그리고 기업 친화적인 R&D 세제 혜택 등
 - 의료·제약 업계는 벨기에 전체 산업 수출에서 꾸준히 1위를 유지, 다만 '24년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수출액이 전년대비 4.8% 하락

- (고용 및 R&D) '22년 기준 고용률 최근 5년간 18.8% 증가했으며 연간 57억 유로 규모 R&D 투자
 - '22년 기준 벨기에 제약 기업 고용 인원은 43,501명으로 지난 5년간 18.8% 증가
 - R&D 투자*도 일일 1,500만 유로, 연간 약 57억 유로 수준으로 전년대비 14.7% 증가
 - * R&D 투자 상당 부분은 자체(in house) 연구에 투입되며, 산학 연계, 해외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도 활발
- (디지털 헬스 강화) '24년 말에 벨기에 연방정부의 연정협약(Coalition Agreement)에 따라 기존 정부의 방향을 유지하며, 디지털 헬스를 공공서비스 현대화의 핵심축으로 설정
 - 전자건강기록(EHR) 및 원격의료 플랫폼* 활용을 통해 환자 정보를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접근 및 공유하여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
 - * 예시 : myconsultation.be, Doctena, Doktr
 - 종양학 및 감염병 분야에서 AI 기반 솔루션 적극적으로 개발 중
 - * 예시 : 뇌 스캔 분석을 위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신경계 질환 진단 및 모니터링 지원
 - 다만, 의료기기법(MDR), AI법,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 등의 규제, 보안 리스크 등의 불확실성은 혁신 확산의 장애물로 존재

□ 에너지 및 석유화학 산업 동향

- (시장규모) '22년 기준 석유화학 시장 규모는 약 93억 달러였으며, '30년까지 연평균 5.9% 성장하여 148억 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전망
 - 벨기에는 엔트워프-브뤼헤 항구에 세계적 수준의 화학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TotalEnergies, INEOS, BASF 등 세계 최고 화학 기업 생산시설 소재
 - '22년 기준 직접 고용 규모는 약 10만 명으로, 63억 달러 규모의 R&D 투자
- (가치사슬 재편) 고에너지 비용·글로벌 과잉 설비 및 탈탄소화 전환에 따라 저탄소 인프라 투자 확장 예정
 - TotalEnergies는 엔트워프 내 가장 오래된 스팀 크래커를 '27년 말에 폐쇄할 예정이며, CCUS 허브, 그린수소·암모니아·메탄올 수입 허브 인프라 구축 예정

□ 자동차 업계 산업 동향

- (시장 규모) '25년 기준 자동차 업계 시장 규모는 136억 유로이며, '20~'25년 사이 꾸준히 연평균 1.8% 성장했지만, 성숙기 진입에 따라 향후 5년은 성장률 감소세 예상
 -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100개 이상의 자동차 브랜드가 존재했지만, '30년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소규모 내수시장에 갇히면서 벨기에 고유 브랜드는 쇠퇴하고 글로벌 OEM 및 부품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
 - 현재는 Volvo, Volvo Truck, DAF 등과 같이 일반 자동차 및 트럭 조립 강국으로 자리매김
 - 그 외, 스포츠카용 변속기(TREMEC), 자동 변속기(AWEurope), 포르쉐용 오디오 시스템(AURO

Technology)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품 생산에 집중

- (고용 및 R&D) '25년 기준 직·간접 고용 규모는 총 16만 명으로 벨기에 GDP의 2.6%에 해당되며, R&D는 '23년 기준 약 147억 유로 규모 R&D 투자 진행
 - 벨기에는 자동차 산업은 300개 이상의 기업으로부터 4만 5,000명의 직접 고용이 이루어지며, 트럭 조립으로만 1만 7,000명, 그 외 1만 명 이상의 기업에서 고용 발생
 - 또한 벨기에는 Toyota, Volvo, Audi 등 주요 OEM의 R&D센터, Flanders Make와 같은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유럽 전체 자동차 R&D의 상당 부분 차지
- (제조전략 재편) 단순한 조립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밸류체인 및 지속가능 전략으로 전환
 - 전통적 제조 기반을 축소하고 전기자동차 기술 연구, 차량 시험·검증, 배터리 소재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R&D 투자 대폭 확대
 - Euro 7 규제, 배터리 규정, '35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등 EU 정책에 따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생산으로 빠르게 전환

라. 투자

□ 외국인 투자 동향

- FDI 유입 규모
 - '24년 벨기에 FDI 유입액은 전년대비 189% 감소, 이는 내부 대출(intra-company loan)* 상환·회수 규모 확대에 따른 통계상 효과로 분석됨
 - *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와 본사 또는 계열사 간에 제공하는 대출 형태의 자금 이동. 자회사가 본사에 상환하거나 제공한 내부 대출 규모가 확대될 경우, 유입액이 음(-)의 값으로 집계됨
 - '24년 전 세계 FDI가 전년대비 11% 감소하며 2년 연속 하락, 유럽 전반의 부진을 고려할 때 '25년 벨기에 FDI 전망 또한 다소 부정적
- 프로젝트(건수) 기준 유입 동향
 - '23년 215건, '24년 210건으로 전년대비 2% 감소했으나 일자리 창출은 5,392개로 증가하며 벨기에의 유럽 내 투자유치 순위는 8위를 유지
 - 지역별로는 플랜더스 137건, 브뤼셀 44건, 왈로니아 29건
 - 반면, '24년 유럽 FDI 프로젝트 수는 전년대비 5% 감소했고(9년 만에 최저치), 창출 일자리 수도 16% 감소하는 등 전반적 하락세 지속

□ 현지 주요 투자유치 산업

- '24년 벨기에 제조업(55건)과 물류(53건) 분야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주도한 반면, 서비스 부문(35건)은 다소 둔화
 - 지역별로는 플랜더스는 항만·화학·클린테크·반도체 R&D 장비, 브뤼셀은 HQ·비즈니스 서비스, 왈로니아는 바이오·제약 제조·물류 프로젝트 중심
 - FDI 심사 신고 기준으로는 데이터(15.1%), 헬스(15.1%), 디지털 인프라(11.6%), 운송(10.5%), 전자통신(8.1%) 순

□ 주요 경쟁국(중국, 일본 등)의 현지 투자 유입 동향

- '24년 벨기에 10대 투자국 중 아시아 국가는 중국(6위, 12건)·일본(9위, 6건)이며, 인도(8위, 8건) 투자 규모가 전년대비 300% 증가하며 신규 진입함
 - (중국) 헝가리 전기차·배터리 프로젝트 급증으로 '24년 대EU 투자가 100억 유로로 전년대비 47% 증가한 반면, FDI 심사제도 강화로 벨기에(C사 물류 허브 프로젝트)·프랑스·독일 등 서유럽 투자는 제한적
 - (일본) 일본 T사, 혈장 유래 치료제 제조·창고 시설 확장에 3억 유로 투자 및 완공('24년 4월). F사, 기존 반도체 소재 생산 공장 증설에 2,500만 유로 투자 계획 발표('25년 2월) 등

□ 벨기에 對韓 투자 현황

- 벨기에 '25년 對한국 투자 신고액은 7만 5,000달러로 전년대비 51% 감소
 - 벨기에 해외 투자는 유럽 주요 인근국(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모기업업을 통한 경유와 금융 투자를 포함하고 있어 직관적 파악이 어려운 편
 - 산업별 주요 투자 분야로는 화학·첨단소재(배터리 소재, 특수화학),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소재, 라이프사이언스(의료·의약 R&D 및 설비) 등

□ 한국의 해당 주재국 투자 진출

- 최근 한국의 對벨기에 직접 투자는 신규 법인 설립 건수와 투자 규모 면에서 제한적이며, 대형 제조·그린 필드 투자보다는 금융·부동산 투자와 반도체 R&D 협력이 주요 진출 분야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22년 신규 법인 설립 건수 5건, 투자 금액은 8천~1.5억 달러 내외로 변동 폭은 있으나 일관된 성장세는 없음
 - 제조·생산보다는 코어 오피스 자산* 투자와 imec**과의 반도체 R&D 협력, EU 정책 대응 거점 유지가 주된 진출 형태

* Core Office Asset 또는 Prime Office Assets. 도심 주요 업무지구내에 위치해 정부·대기업에 장기 임차 부동산

** 벨기에 루벤(Leuven) 소재 세계적 나노전자·디지털 기술 연구소이자 반도체 R&D 허브

한국의 對벨기에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분기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금액, 건	증감
투자금액	81.4	-	0	-100%	147.8	-	0	100%
신규 법인 설립 건수	5	-	1	80%	0	-100%	0	-

주: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벨기에 투자 진출 시에는 지역별 행정 규제와 언어 요건, 높은 노동비용 및 강한 노사 제도 등이 주요 진입장벽으로 작용
 - (행정) 사업·환경 인허가가 지역별로 상이하고(플랜더스, 왈로니아, 브뤼셀), 행정 절차의 복잡성과 언어 요건이 외국 기업의 초기 진입 부담 요인으로 작용
 - (인사·노무) 임금 자동 지수 연동, 높은 단체교섭 적용률, 노사협의기구 설치 의무 등으로 인건비 압력과 운영 유연성 제한
- 최근 도입된 투자 심사 제도와 EU 차원의 보조금·데이터 규제, 항만 안전 규정 등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장벽이 다층적으로 존재
 - (FDI 스크리닝) '23년 7월부 비EU 투자자의 에너지·바이오·데이터·핵심 인프라 분야 지분 취득 시 사전 신고·승인 의무 부과
 - (EU 외국 보조금 규정) 비EU 정부 보조금이 개입된 대형 M&A·공공 조달은 EU 집행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 필요
 - (데이터·디지털·헬스 규제) GDPR(EU 개인정보 보호법) 외에도 건강·생체·유전정보 처리와 디지털 헬스·AI 기술 관련 별도 요건 존재
 - (항만·위험물 취급)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 항만은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인증 요건이 엄격해 화학·에너지 물류 진출 시 추가 고려 필요

2. 유망 산업

가. 배터리 저장시스템(BESS)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벨기에의 배터리 저장시스템은 '23년 기준 최근 3년 동안 약 1.5GWh 성장했으며, 75%는 주택용, 나머지는 그리드 형식으로 설치
 - 주택용 BESS 시장은 '22년에 플랜더스 지방정부의 가정용 배터리 설치 지원금 제도, 순계량제(NEM) 단계적 폐지, 에너지 위기 영향 등으로 크게 성장
 - 반면, 왈로니아 및 브뤼셀 지역에는 전력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기존 태양광 수출 관세 및 가정용 배터리 보조금 부재로 시장 확장 제한
 - 그 외, 그리드 형식도 '23년 기준 약 370MWh 설치되었으며, '24년 말에 용량 보상 메커니즘(CRM) 경매를 통해 '25~'29년까지 총 450MW 규모의 BESS 계약 확보
- (프로젝트) 벨기에 내 △Giga Storage Belgium, △BESS Vilvoorde, △BESS Feluy 등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 프로젝트 진행 중
 - (Giga Storage Belgium) 벨기에 고압 전력망 운영사 엘리아(Elia)의 미래 고압 변전소 인근 딜레-스토켄(Dilsen-Stokken) 로템(Rotem) 산업단지에 스웨덴 업체 Sweco 주도하에 '26~'28년까지 유럽 대륙 최대 규모 Green Turtle 배터리 파크를 건설하고 '29년부터 전력 공급 목표
 - 동 배터리 파크는 2,800MWh의 저장용량을 보유하고 700MWh의 출력이 가능하며 연간 33만 가구의 평균 전력 소비량을 저장하여 전력망 공급 예정
 - (BESS Vilvoorde) 프랑스 전력회사 엔지(ENGIE SA)는 '24년 9월에 브뤼셀 외곽 빌보르데(Vilvoorde) 부지에 200MW 규모의 BESS 건설 착수
 - 현재 가스 발전소가 위치한 동 부지에 800MWh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200MW 용량의 BESS 건설을 통해 96,000가구에 전력 공급 예정
 - (BESS Feluy) 프랑스 거대 에너지 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는 '23년에 벨기에 안트워프 정유소에 25MW 규모의 BESS 건설에 이어 '24년에 벨기에 펠뤼(Feluy)에 동일한 규모의 BESS 두 번째 프로젝트 착수
 - 안트워프에 건설된 BESS는 '24년 말에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두 번째 프로젝트는 '25년 말에 가동될 예정
- (수입 동향) '24년에는 벨기에 배터리 저장시설 관련 품목의 수입 비중이 기저 효과에 따라 전년대비 하락했지만, '22년과 '23년에는 크게 증가

최근 벨기에 배터리 저장시설 수입액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HS	산 업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507	리튬이온 축전지	3,159	33.9	4,454	41.0	2,382	-46.5
8504	전력변환 장치	1,631	29.8	1,810	11.0	1,616	-10.7
8415	냉각 소화 시스템	1,079	-4.9	1,175	8.9	895	-23.8
8537	배터리 관리 시스템	941	-11.7	1,362	44.9	1,058	-22.4

자료: Global Trade Atlas('25.9.2. 기준)

- 또한 '24년 배터리 저장시설의 전체적인 수입액은 최근 2년에 비해 하락했지만, 해당 품목의 對한국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
 - ▶ 특히 리튬이온 축전지에 해당하는 품목은 '22년과 '23년에 전년대비 각 167.5%, 468.9% 급격하게 상승했으며 경쟁국 대비 순위도 8위('22년) → 4위('23년) → 3위('24년) 순으로 꾸준히 상위권 차지
 - ▶ 그 외, 전력변환 장치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도 '24년에 전년대비 전체 수입액이 각각 10.7%, 22.4% 하락했지만, 對한국 수입액은 각각 약 82.9%, 81.5% 상승

최근 벨기에 배터리 저장시설 품목 對한국 수입액 및 추이

(단위: 천 달러, %)

HS	산 업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8507	리튬이온 축전지	50,713	167.5	288,529	468.9	214,702	-25.6
8504	전력변환 장치	3,450	-7.8	3,462	0.3	6,332	82.9
8415	냉각 소화 시스템	778	33.7	918	18.0	1,450	57.9
8537	배터리 관리 시스템	2,190	15.9	3,357	53.3	6,091	81.5

자료: Global Trade Atlas('25.9.2. 기준)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SWECO) 스웨덴 기반의 유럽 최대 규모 건축·엔지니어링 컨설팅 기업으로 건축 및 도시계획, 수자원·에너지·산업·교통 인프라, 지속가능 도시 개발 서비스 제공

SWECO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SWEC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 기반 프로젝트 수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철도회사 Deutsche Bahn의 대중교통 개선 프로젝트, △스웨덴 바이오 연료 플랜트 지원, △덴마크 최초 수소 인프라 사전 준비 참여, △벨기에 엔트워프 항구를 홍수 대응형 주거지로 전환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 수주 등 • 룩셈부르크 기반 기업 프로그램(PROgroup) 및 임팩트(HmpaKT)와 계약을 통해 베네룩스 지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순환경제 및 데이터 개발 프로젝트 관리 역량 강화

자료: SWECO 공식 사이트 및 현지 언론

- (ENGIE SA) 프랑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및 유틸리티 기업으로 재생에너지·네트워크·에너지 솔루션·배터리 저장 등 에너지 인프라 구축 서비스 제공 업체

ENGIE SA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ENGIE S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르(바르셀로나-마르세유)를 잇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조인트벤처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GIE 자회사 Natran이 '30년까지 연간 200만 톤 수소 수송 목표로 스페인 Terega, Enagas사와 함께 발레르(바르셀로나-마르세유)를 잇는 해저 수소 파이프라인 Barmar 조인트벤처 설립 • 호주 Santos사와 연간 최대 20페타줄(PJ)의 가스 공급 계약 체결

자료: ENGIE SA 공식 사이트 및 현지 언론

- (TotalEnergies) 프랑스 본사를 둔 글로벌 통합 에너지 기업으로 석유·가스·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 업체

TotalEnergies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TotalEner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NGIE 북미 자사는 SolarCycle과 협업해 375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에 패널과 구성 요소의 재활용 조항을 PPA에 포함하는 선제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00만 개 태양광 패널을 재활용하는 프리사이클링(precycling) 파일럿 테스트 진행 • ENGIE는 이집트에 'Red Sea Wind Energy 프로젝트'를 통해 총 650MW 규모의 아프리카 최대 풍력발전소를 기존 계획보다 4개월 빠르게 완공했으며, 연간 100만 가구 이상의 전력 공급 예정

자료: ENGIE 공식 사이트 및 현지 언론

- (향후 전망) EU의 배터리 저장시스템은 '28년까지 매년 30~40%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60GWh 누적 용량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주거용 중심에서 상업·산업용(C&I) 및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저장 시간 확대·비용 하락·정책 지원 등이 시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

나. 탈탄소 밸류체인 - 항만 기반 클린테크

□ 개요

- 벨기에 앤트워프-브뤼헤 항만은 유럽 최대 에너지·화학 물류 거점으로, 친환경 연료 전환·수소·암모니아 활용·CO₂포집저장(CCUS)* 등을 아우르는 '항만 중심 탈탄소 밸류체인'을 구축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CO₂를 포집·저장하거나 활용하는 탄소 감축 기술

- 선박 연료의 메탄올·암모니아 등 e-연료 전환에 따라, 친환경 연료 인프라(수소·암모니아 크래킹 및 배관망, 쇼어파워*, 암모니아·메탄올 벙커링 등)의 단계적 확산

* OPS(Onshore Power Supply) : 선박이 항만에 정박할 때 육상 전력망을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 선박의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고도 전력을 사용하는 시스템

- 동시에, 항만 화학단지를 중심으로 한 CO₂집하·액화·저장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새로운 밸류체인 형성 중
- 현지 산업 규모
 - 앤트워프-브뤼헤 항만의 '24년 화물 처리량은 2억 7,770만 톤(전년대비 +2.3%)으로, 유럽 내 에너지·화학·컨테이너 물류 핵심 거점으로서 지속적 기능
 - 항만 내 CCUS·수소·e-연료 인프라의 동시 확충을 통해 오픈액세스 기반 CO₂집하·액화·선적 허브 구축과 수소·암모니아 공급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세
- 최근 수출입 동향
 - 항만은 '27년 암모니아 수입·크래킹 단지(Advario-Fluxys) 가동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30년까지 연 1,000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수입 계획에 따라 e-연료·수소 운반체(암모니아·메탄올 등) 수입 거점 기능 강화
 - Antwerp@C 프로젝트(항만 내 CO₂인프라 표준화)의 1단계 사업인 Kairos@C 프로젝트(연 150만 톤 포집)를 통한 CO₂선적·수출 네트워크의 구체화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Fluxys) 국가 가스·수소 인프라 운영사로, 항만 내 수소·암모니아 배관망과 CO₂집하·액화·저장 네트워크의 핵심 주체로 기능
 - '24년 Fluxys Hydrogen 법인 출범과 동시에 국가 수소 네트워크 운영자로 지정되었으며, '30년까지 연 30TWh 규모 수소 수송 역량 확보 목표
 - Advario와 합작으로 항만 내 암모니아 수입·저장·크래킹 단지('27년 가동 예정) 개발 중으로, 해외 청정수소 공급망과 직접 연계되는 프로젝트 추진
- (Advario) 글로벌 에너지 저장·터미널 운영사로, 항만 내 청정연료 수입·저장 허브 구축을 추진
 - Fluxys와 협력하에 암모니아 크래킹 및 대규모 저장 단지를 건설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e-메탄올 등 다양한 수소 운반체 도입 계획 참여
 - 암모니아 저장 탱크 및 크래킹 플랜트 설비 분야에서 EPC·밸브·펌프·안전설비 기업과의 협력 기회 존재
- (Air Liquide) 글로벌 가스기업으로, Antwerp@C 및 Kairos@C 프로젝트의 주도 기업 중 하나로써 항만 CCUS 체계 구축에 핵심 역할
 - 독일 BASF와 공동으로 Kairos@C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연 150만 톤 규모 CO₂포집·액화·선적 허브 구축 착수
 - 포집 공정 장비, 계측·제어 솔루션, MRV(측정·보고·검증) 기술 분야의 협력 수요 확대

- (엔트워프-브뤼헤항) 항만 차원의 탈탄소 전략을 총괄하며 다연료 포트·OPS·수소 허브 정책 주도
 - '24년 Maersk 선박 대상 유럽 첫 그린 메탄올 벙커링 시행을 통해 항만 내 e-연료 벙커링 인프라 구축 선도
 - EU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FIR)*의 '30년 OPS 의무화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 과정에서 전력·충전 설비 제조·EMS 기업과의 협력 기회 확대

* 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 '30년까지 주요 항만·공항·도로망에 전기차 충전소, 수소 충전소, OPS(쇼어파워) 등 대체연료 인프라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24년 발효)

□ 기타(향후 전망, 기회 요인 등)

- 엔트워프-브뤼헤 항만의 탈탄소 밸류체인은 EU 그린딜, REPowerEU, AFIR 규정 등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해운·화학기업의 투자 확대로 향후 성장세 지속 전망
 - '30년까지 항만 OPS 의무화, 암모니아·메탄올 벙커링 확대, CO₂포집·저장 네트워크 본격화에 따른 항만 탈탄소 인프라 시장 연평균 7~8% 성장 예상
 - 수소·암모니아 공급망 조성 및 CCUS 허브화는 EPC·플랜트 기술, 전력·충전 설비, 밸브·계측기, 디지털 솔루션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요인
- 북해 연안국과 연계된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해상풍력·수소·CCUS)가 동시 추진됨에 따라 벨기에는 유럽 내 탈탄소 허브로 부상할 전망
 - '27년 암모니아 크래킹 단지, Antwerp@C 및 Kairos@C 등 1단계 CO₂포집 프로젝트가 완료될 경우 항만 기반 에너지 전환 밸류체인의 실증 거점 구축
 - 항만·화학 클러스터 집적 효과와 EU 공동 인프라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초기 투자·합작 진출 및 기술 협력 기회 다대

다. 디지털 및 사이버보안

□ 개요

- 현지 산업 규모
 - EU 집행위원회가 '25.6.18. 발표한 디지털 10년 국가보고서(Digital Decade Country Report 2025)에 따르면, 벨기에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됨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 Report Analytics가 '25.4.26.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벨기에 사이버보안 시장은 '24년 기준 약 4억 유로 규모이며,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8%로 전망됨
 - 벨기에 사이버보안 시장은 '19년부터 '24년까지 11.14%의 꾸준한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와 같은 성장은 BFSI(은행, 금융 서비스, 보험), 의료,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디지털화에 기여. 정부의 국가 사이버보안 인프라 강화 정책도 시장 확대에 기여함

- 주요 세부 산업 분야로는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 등이 있음
- 최근 수출입 동향
 - 벨기에는 EU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단위의 수출입 동향 통계는 제한적이지만, 벨기에 전체 서비스 수출 중 ICT 서비스 수출이 '24년 기준 15.74%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사이버보안 관련 서비스 역시 동 범주에 포함됨
 - 벨기에 현지 언론 The Brussels Times의 보도('25.4.21.)에 따르면, 왈로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이버보안 전문 인력 구인을 해외에 홍보하고 있고, 사이버보안 산업과 관련해 해외 전략적 파트너십 형성 및 기술 수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Proximus는 벨기에를 대표하는 통신·디지털 서비스 기업으로, AI와 사이버보안 융합을 선도하기 위해 Proximus Ada라는 자회사를 설립함
 - 해당 자회사를 통해 디지털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AI 기반 보안 솔루션 및 SOC 운영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Proximus는 '25.3.14. F5와 협업해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대응하는 통합 보안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으며, 350명 이상의 전문가를 통해 24시간 보안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GDPR 및 NIS2 규제 대응 등을 지원하는 Proximus NXT 브랜드를 운영 중
 - '25년 6월 10일에는 NATO IT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역량을 입증하고 있음

□ 향후 전망 및 기회 요인

- 벨기에 현지 언론 The Brussels Times의 보도('25.4.21.)에 따르면, 사이버보안 분야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교육·훈련 및 아웃소싱 서비스 수요가 증가
 - 벨기에 정부는 국방 차원의 'Cyber Command' 정부 사이버 전략 부서를 '22년 신설, 약 4억 유로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AI 기반 보안 솔루션, 원격 SOC 운영, 교육 플랫폼, 규제 대응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3. 협력 기회

가. 한국-벨기에, 방위·바이오 산업 중심으로 G2G 협력 유망

□ 한국-EU 안보·방위 협약을 바탕으로 EU 방위산업으로의 진출 가능성 확대

- 벨기에, 향후 10년간 방위 수요 확대 전망
 - 러-우 사태 지속 및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美 안보 정책의 변화로 EU와 NATO 회원국은 자체 재무장 및 방위산업 육성으로 정책 기조 전환
 - 한국은 '24년 11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Security and Defence Partnership)*을 체결한 상황으로 유럽 방위 시장 진출에 다소 유리한 입장
 - * EU는 강화된 안보 동맹 구축을 위해 '24년부터 양자 협약 형태의 파트너십을 체결, '25년 상반기까지 노르웨이, 몰도바, 한국, 일본,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영국, 캐나다 등 8개국과 안보 방위 파트너십 체결
- 벨기에 맞춤 방위 시장 진출전략 수립 필요
 - EU의 방위 수요로는 방공 방어 시스템, 드론 및 對드론 방호 체계(Anti-UAV Defence System), AI 및 전자전 등의 신기술 장비 등이 있음

※ 참고 : EU의 SAFE 공동 조달 방산 제품 카테고리

- EU는 SAFE 규정을 통해 1,500억 유로의 대출을 기반으로 역내 최소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방위 장비 공동 조달 및 역내 대규모 방위 장비 시장 조성 계획
 - SAFE 규정은 방위 장비의 EU 우선 수요를 바탕으로 2개 카테고리의 공동 조달 방산 제품을 지정
 - * 카테고리 1 : 탄약 및 미사일, 심층 정밀 타격 능력 포함 포병 시스템, 군인 장비 및 보병 무기 포함 지상전 지원 시스템, 소형 드론(NATO 1등급) 및 관련 드론 대응 시스템, 핵심 인프라 보호, 사이버 전 대응, 군사 기동성 관련 제품
 - * 카테고리 2 :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해상 수상 및 수중 능력, 중·대형 드론(NATO Class 2, 3) 및 관련 드론 대응 시스템, 전략적 규제 조화 기구(enabler, 항공 수송 능력, 공중 급유, C4ISTAR 시스템, 우주 자산 및 서비스 포함), 우주 자산 보호, AI 및 전자전 관련 제품

- 벨기에는 지상 전력 화력 및 기동성 향상, 대공 능력 보완, 군사 기동성 및 지원 능력 개발, 무인 항공기 대응 시스템 등 지대공 복합 방어 능력 구축 등을 역량 강화 우선순위 분야로 지정 (Strategische Visie 2025)
- 다만 EU는 방위 시장 조성과 함께 역내 방위산업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관련 조달 과정에서 회원국 정부 및 기업과 긴밀한 협력 필요

※ 참고 : EU의 SAFE의 역외국 조달 조건

- EU는 역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SAFE 규정을 통해 최종 제품의 최소 65% 이상이 유럽에서 생산되도록 EU 및 EEA, EFTA 등 인근 유럽 국가로 장비 조달 참여를 제한
 - 단 총 계약 가치의 15~35%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의 경우, EU와 안보 및 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제3국 기업도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 ① SAFE 규정 발효('25.5.29.) 전 이미 계약 관계가 존재했거나, ② 2년 이내 관련 제품을 유럽 생산 제품으로 대체 가능할지 타당성 검토 약속 시, 역외 기업도 SAFE를 통한 공동 조달에 참여 가능
 - 만약 EU, EEA-EFTA, 우크라이나에 설립되었으나 제3국 기관의 통제를 받는 법인의 경우, EU의 외국인 직접투자심사를 거치거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회원국의 보증을 통해 조달에 참여 가능

□ 유럽의 생명과학 허브 벨기에, EU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에 주목

- 벨기에, 한국 바이오 산업에 높은 관심
 - 벨기에 다비드 클라랭발 부총리는 '25.9.17. 서울에서 열린 한국-벨기에 비즈니스 포럼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의 필요성과 벨기에의 생명과학 분야 인프라를 강조하며 생명과학·공학을 주요 협력 분야로 언급
 - 벨기에는 유럽 내 대표적인 생명과학·제약 산업 중심지로 글로벌 제약사 및 관련 연구 기관이 밀집한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 보유,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3.3%('23년)로 역내 2위, 역외 의약품 수출액은 EU 3위('24년, 410억 유로)
 - 코로나19 이후 유럽 내 관련 백신 생산 인프라를 가장 먼저 구축해 생산 허브 역할 담당, 주변국으로 이어지는 관련 물류 인프라도 조성돼 있음
- 벨기에 제약·생명과학 분야 주요 기업 및 기관
 - 벨기에의 세 언어권 지역 플랜더스, 왈로니아, 브뤼셀 전역에 생명과학 클러스터가 분포해 있으며, 주요 대학 및 기관들이 EU의 Horizon Europe, IMI(혁신의약 이니셔티브) 등 다수의 생명과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
 - 특히 한국은 '25년 1월 1일부터 EU의 대표 연구 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준회원국으로 참여 가능, 이를 활용한 연구기관 및 기업 간 기술 교류 확대 기대

벨기에 내 주요 제약기업 및 연구 기관

기업·기관명	주요 활동	벨기에 내 위치
Pfizer(미국)	• 벨기에 전역 4개 제조 시설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 백신 및 주사제 생산	푸어스(플랜더스)
Janssen(미국)	• 백신·항암제·면역치료제 개발 및 생산	비어스(플랜더스)
AstraZeneca(미국)	• 심혈관·호흡기·종양학 치료제 개발 및 생산	브뤼셀
GSK(영국)	• 백신 및 일반의약품 생산, R&D 및 유통	와브르(왈로니아)
Galapagos(벨기에)	• 항암 세포치료제·류마티스·염증질환 치료제 개발	메헬렌(플랜더스)

기업·기관명	주요 활동	벨기에 내 위치
UCB Pharma(벨기에)	• 신경질환, 면역질환 치료제 개발	브뤼셀
VIB (Flemish Institute for Biotechnology)	• 플랜더스 정부 지원 생명과학 연구 기관으로 유전체학· 암생물학·면역학·신경과학 등 생명과학 연구 전반	겐트에 본부가 있으며 루벤(플랜더스), 브뤼셀 등에도 위치
KU Leuven	• 루벤대학교는 생명과학·약학·반도체·의료기기 등 다양한 학제 간 연구 활발, 관련 연구로 세계적 반도체 연구소 imec과 협력	루벤(플랜더스)

자료: BMI Belgium Pharmaceuticals Report(2025.3Q)

• 한-EU 제약 규제 협력 및 제도 정합성 확보 필요

- EU는 기존에 회원국별 지침 형태로 운영하던 제약·의약품 관련 규제를 역내 단일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하며, 규제 일원화 및 단일 시장 조성을 추진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음
- * EU는 '17년 4월 기존 의료기기 지침을 의료기기 규정(MDR)으로 개정하고 '21년 5월부터 적용 중, 한편 EU 의약품 지침(2001/83/EC)도 개정안이 '23년 4월 EU 집행위원회에서 제안되었으며 현재 입법 논의 진행 중
- 한국은 '19년부터 EU가 의약품 원료 GMP(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운영체계를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으며, 향후 EU와의 GMP 상호인정 협상(MRA)* 체결 시 한국 제약사의 EU 수출 확대 및 인증 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
- * 현재 미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이 EU와 MRA 체결
- REACH(화학물질등록승인제도), CTR(임상시험 통합 규정), GDP(의약품 유통관리 기준), GMP 등 관련 EU 법·제도에 대한 국내 전파 및 전문가 교류 확대 필요, 또한 공동 임상시험, 바이오시밀러 진출을 위해 EU 규제 기관-벨기에 인증 기관-한국 관련 기관 간 협력 채널 구축 필요*
- * (사례) '24년 4월 의료 및 의약품에 대한 민감정보 공유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EU 집행위원회 산하 보건식품안전총국 간 기밀 유지 협정 체결

나. '25~'26년 벨기에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벨기에, 에너지·물류 허브 선점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연계 추진

- 벨기에, EU의 RRF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가 및 대기업 주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추진 중
- * 코로나 이후 EU는 경기 부양을 위해 7,500억 유로 규모 경제회복기금을 조성, 회원국은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계획에 따라 이행 목표 달성을 통해 집행 요청
- RRF는 '26년 말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나, 벨기에의 목표 달성률은 44% 수준에 그쳐, '25~'26년 중 관련 프로젝트 진행 가속화 전망
- 벨기에, 북해 해상풍력을 연결하는 에너지 인공섬 프로젝트(Elia), EU 회원국 간 수소·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 구축 프로젝트(Fluxys) 등 EU 회원국을 연결하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벨기에 대규모 프로젝트 뒷받침을 위해, 벨기에 내 전력 고압선 확장 및 항만·내륙 수로·철도·공항

- 시설을 확대하며 역내 에너지·물류 허브로 도약 희망
- 또한 EU의 핵심 정책인 친환경·디지털 전환 기조에 따라 맞춰 관련 프로젝트 추진 시, 수처리·환경 정화·재활용·탈탄소·자동화·디지털 시설 등이 연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음



성공 사례 1

- (개요) 앤트워프 항만 내 초대형 에탄 크래커의 PDH 유닛 신설에 한국 A 기업 FEED 계약 수주('19년)
 - 해당 프로젝트는 '19년 서유럽 최대 석유화학 신규 투자를 위한 공사로, 한국 기업이 상부 엔지니어링, 설계 단계에 참여
 - 한국 기업이 최초로 공정 설계 전문성과 PDH 경험 등 유럽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규모 화학 프로젝트에 참여한 첫 사례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유럽의 대형 화학, 인프라 프로젝트는 현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현지 기업이 EPC를 주도하나, FEED, 전문 설비, 모듈 분야 등 특수 기술 및 기자재를 중심으로 틈새시장 진출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됨



성공 사례 2

- (개요) 겐트항 인근 신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 건설에 한국 B 기업 계약 수주('25년)
 - 해당 프로젝트는 플랜더스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Aquafin이 발주한 사업으로 연간 6만 5천 톤의 슬러지 처리 시설
 - '26년 완공을 목표로 한국 B 기업의 독일 자회사는 친환경, 자원 순환 분야의 특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설계-기계 및 전기 장비 공급-시운전을 포함한 턴키 계약 수주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EU는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 등을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관련 인프라 사업에서도 이미 친환경·자연 순환·탈탄소·에너지 절감 등 특화된 기술이 주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련 추세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벨기에 수소 시설 구축을 위한 Fluxys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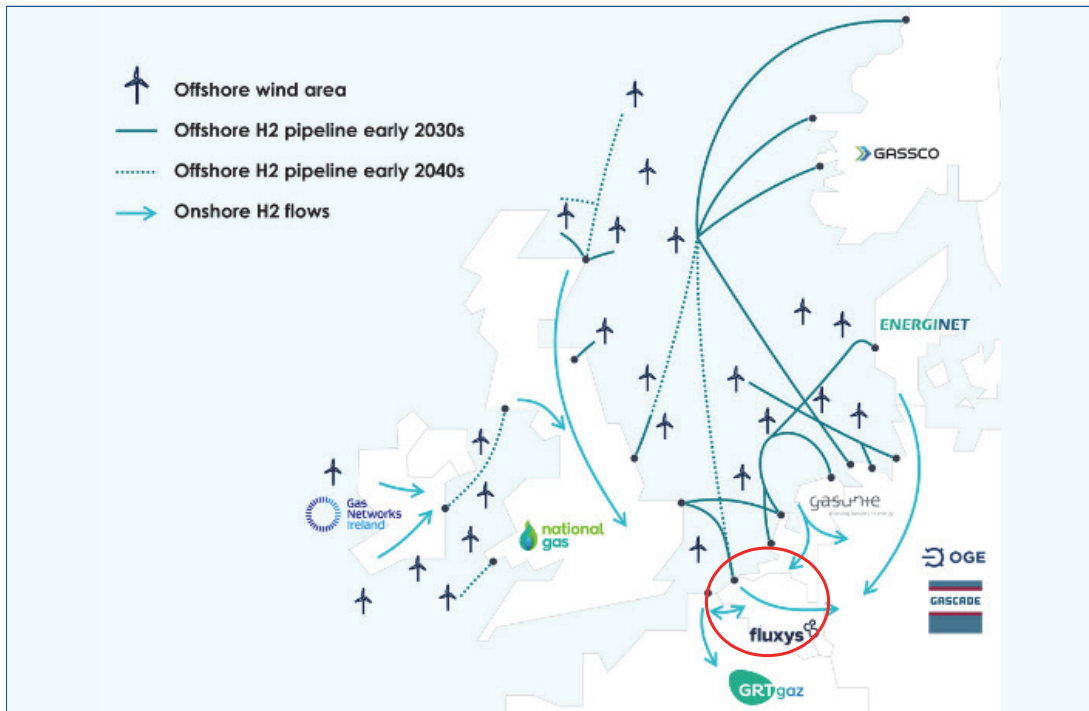
- 벨기에, 수소 파이프라인 일부 구간 구축을 위한 1단계 공사 추진
 - Fluxys는 역내 수소·바이오메탄·이산화탄소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 운반체 운송 및 탄소 재사용·저장 인프라 개발에 주력
 - Fluxys는 유럽수소중추(European Hydrogen Backbone) 전략의 일환으로 벨기에 수소 수송 인프라 개발에 참여

- 벨기에 에너지섬 Elias 프로젝트와 함께 북해에너지통합모델*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그린수소·암모니아·탄소 포집 등 복합 에너지인프라 통합 전략 추진

* 북해를 유럽 에너지 허브 삼아, 해상풍력·재생에너지 전력망 연결, 그린수소·암모니아 파이프라인 및 항만 터미널 연결, 파이프라인을 통해 탄소 포집 및 해저 저장소로 연결 등 여러 에너지 운반체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모델

- '26년 완공 및 운영을 목표로 3억 3천만 유로 규모의 1단계 구간(엔트워프-겐트-칼로-젤자테)의 토목·파이프 공사 개시('25.3.)
- 개발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Fluxys Hydrogen'은 '30년까지 연간 30TWh 수소 운반 목표

〈유럽 수소 인프라 프로젝트 지도〉



자료: Fluxys

- EU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에 협력 기회 모색 필요
 - Fluxys는 현재 1단계 공사를 시작으로, '26년까지 토목·파이프 관련 자재, 압축 설비, 밸브 등 기자재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됨, 이에 관련 기자재, 엔지니어링,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참여 기회 모색 필요
 - Fluxys는 유럽수소중추 전략이라는 EU의 수소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 벨기에 사업 참여를 통해 탄소 저장, 탈탄소 산업 전환 등 다양한 수소 기반 경제·산업·정책 등 EU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가능성 탐색

다. 벨기에, 핵심 원자재 공급망 강화 노력

□ 주요 벨기에 원자재 기업, 가공 및 정제 산업 고도화 추진

- 유미코어(Umicore), 정제·재활용 역량에 선택과 집중, 관련 투자 확대
 - 벨기에 원자재 가공·정제 기업 Umicore는 2028 전략 로드맵에서 순환형 사업 모델을 강조하며, 호보켄의 정제공장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업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성·경쟁력 강화 목표 발표('25.3.27.)
 - 니르스타(Nyrstar), 아연 생산에 기반한 핵심 원자재 공정 강화 계획
 - Nyrstar의 벨기에 Balen-Pelt 제련소는 아연 책임생산인증(Zinc Mark)을 취득하며 고부가 정제 시스템 및 ESG 수준 입증
 - 향후 EU의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정책에 맞춰 게르마늄*, 갈륨 등 핵심 원자재 금속 처리 역량을 확대할 계획, 정제·부산물 회수 역량 강화 목표
- * Nyrstar의 벨기에 제련소는 아연 생산에 집중하고 있으며, 게르마늄 생산 역량 강화는 Nyrstar의 호주(Hobart), 미국(Clarksville)을 중심으로 추진 중


□ 벨기에,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위한 국내 교두보 선점 노력

- 벨기에, 높은 재활용률을 기반으로 2차 원자재 생산 인프라 구축 노력
 - 벨기에는 EU 평균보다 높은 생활 폐기물·포장재 재활용률로 성숙한 자원 순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평가받고 있음
 - 벨기에 내 재활용 정책·제도를 기반으로 Morssinkhof-Rymoplast(첨단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Aurubis(슬러지 재처리로 고부가 원자재 회수) 등 주요 재활용 기업이 등장했으며, 그 외에도 재활용 산업이 확대되는 추세
 - 또한 EU는 배터리 원자재를 중심으로 2차 원자재 생산 확대 목표, 재활용 기술 및 설비 수요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과의 협력 기회 모색 필요



Ⅲ.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45
2. 진출전략	47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25년 1월 우파 연립정부 출범으로 노동시장 개선 정책 등 기업 친화적 정책 강화
- 유럽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EU 옴니버스 패키지 추진
- NATO의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 확대('35년까지 5%) 및 벨기에의 군사력 증강 계획 개정안 발표



경제(Economic)

- '25~'26년에는 대외 수요 개선과 정책 효과로 경제 성장률 소폭 반등 전망
-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이 경기 회복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
- '26년 말 EU 경제회복기금(RRF) 집행 완료에 따른 벨기에 내 대규모 프로젝트 가속화 전망



사회문화(Social)

- 소비자들의 에너지 효율 중시 및 친환경 제품 선호
- 인접국(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과 언어를 공유하고 있으며 문화도 유사해 EU 역내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교두보로 활용 가능



기술(Technological)

- EU의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으로 수소 인프라, BESS,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 확대
- 벨기에 신정부는 디지털 헬스를 공공서비스 현대화의 핵심축으로 설정한 만큼 관련 부문 수요 증가 가능

SWOT 분석

강점(Strength)



- 유럽 정치·경제의 중심지로 EU 정책 동향 파악에 유리
- 우수한 물류 인프라 및 유럽 내 지리적 이점 보유
- 화학, 제약 등 고부가가치 산업 발달로 기술 협력 수요가 높음

약점(Weakness)



- 한국 제품·기업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 프랑스어·네덜란드어·영어를 모두 사용하는 복잡한 언어 환경
- 복잡한 EU 규제 및 인증 요구

기회(Opportunity)



- 신정부의 규제 간소화 움직임으로 기업 진출 장벽 완화 기대
- 한국-EU 간 기구축 협력 체계 활용 가능
- EU 경제회복기금(RRF) 등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가능성

위협(Threat)



-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강화 우려
- 중국의 과잉 공급으로 시장 점유율 잠식 우려
- 러-우 사태 장기화로 지정학적 불확실성 지속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EU 정책 허브의 지위를 이용한 선제적 시장 진입
-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현지 기업과 공동 R&D 추진



EU 정책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핵심 시장 진출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벨기에를 거점으로 EU 27개국 시장을 동시 공략해 개별 국가의 보호무역 리스크 완화
- 방산 협력 확대로 러-우 사태에 따른 안보 수요 대응



지리적 특징을 활용해
EU 시장 전체로
시장 확대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RRF 연계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한국 기업 진출 성공 사례 구축
- 현지 컨설팅사 등을 통해 규제 동향 지속 모니터링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으로 한국 기업
진출 레퍼런스 마련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보유한 품목 위주로 진출
- 현지화 강화로 EU 역내 생산 지위 획득



디지털, 방산 등
제품력을 인정받은
품목으로 시장 공략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공급망 재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내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활용한 현지 공급망 편입
에너지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을 겨냥한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방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간 방위 협력 체계를 활용한 K-방산 진출 기회 모색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반 사업 수요 공략

전략 ①

EU 내 규제 완화 움직임을 활용한 현지 공급망 편입



전략 수립 배경

- 벨기에는 '25년 2월 출범한 연립정부가 재정 건전화, 노동 시간 조정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기업 규제 부담을 완화하려는 추세
- 한편 EU-미국 무역협정이 체결됐으나 통상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으며 향후 벨기에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EU가 공급망을 내재화하고자 하는 제약, 2차 원자재 분야를 중심으로 벨기에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진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현지 동향

- EU-벨기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지원책 강화 중
 - EU 집행위원회는 '29년까지 기업의 규제 준수 부담을 25%(중소기업의 경우 35%) 감축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고, 규제 간소화를 위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순차 발표 중
 - 벨기에 정부는 '25년 1월부터 기업이 환경, 모빌리티, 디지털 전환 등 주요 산업 분야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40%를 과세 소득에서 공제
 - 또한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 정부는 '25년 7월 플랜더스 지역 기업의 규제 부담 경감을 위해 100개 이상의 행정 규칙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는 계획을 발표
- 트럼프 2.0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불확실성으로 역내 공급망 강화 움직임 심화 전망
 - '25년 7월 EU-미국은 철강·알루미늄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설정하는 데 합의했으나, 향후 미국발 통상 불확실성은 잔존하는 상황
 - 유럽의회가 '25년 7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대미 수출액이 높은 회원국에게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벨기에의 주요 수출품인 제약 품목은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
 - * US tariffs : economic, financial and monetary repercussions
 - 이에 역내 기업들은 EU 단일 시장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재화와 다변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진출전략 및 유망 품목

- (제약) 역내 필수약품 제조 기반 마련을 통해 현지 생산 인센티브 확보
 - 벨기에는 유럽 내에서 대표적인 제약 허브로, 다국적 제약사의 생산거점과 임상시험 생태계가 공존하고 있어 한국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이미 마련돼 있는 상황
 - 특히 EU가 '25년 3월 제안한 핵심약품법(CMA, Critical Medicines Act)은 필수약품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동 조달·재고 확보 등의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이 벨기에에 생산·임상 거점을 구축할 경우 CMA 인센티브와 EU 조달 시장 진입 기회를 동시에 확보 가능
- 한국 기업은 △항생제·마취제·수액 등 병원 필수 주사제 △원료의약품(API) 및 중간의약품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의약품 등을 중심으로 진출을 고려할 수 있음
- (2차 원자재) EU 순환경제 전략에 따른 재활용 시장 확대, 벨기에의 재활용 인프라 활용 가능
 - 벨기에 2차 원자재 생산량은 '20년 25,783kt(킬로톤)으로 '04년 대비(10,855kt) 2배 이상 증가했으며, EU의 순환경제 실행 계획 및 핵심원자재 34종 확정('23년)으로 시장 확대가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
 - 벨기에는 EU 평균 대비 높은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어 2차 원자재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역내 다른 국가보다 잘 갖춰져 있음
 - 특히 한국의 폐전자제품 처리, 금속·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활용해 진출이 가능하며, 관련 분야에 진출한 현지 기업과의 파트너십 체결이 진출에 용이

전략 ②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을 겨냥한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전략 수립 배경

- 벨기에에서는 현재 수소 에너지, BESS 재생에너지 발전 등 그린에너지 중심의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
- 특히 EU의 RRF(회복·복원력 기금) 지급이 '26년 말 마감될 예정으로 유사 프로젝트 발표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우리 기업은 프로젝트 시장에 관련 기자재 등을 공급할 수 있음

□ 현지 동향

- EU RRF 기금 마감을 앞두고 속도 내는 벨기에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
 - 벨기에 정부와 민간기업은 수소 인프라, 재생에너지 발전, 전략 저장장치 등에 대규모 투자를 허가 및 추진 중
 - ▶ 스웨덴 엔지니어링 컨설팅사 SWECO는 벨기에에 Green Turtle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건설해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낮은 기간 동안 저장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함
 - ▶ Fluxys사는 항구 및 산업 클러스터를 잇는 수소중추(Hydrogen Backbone) 전략의 일환으로 벨기에의 수소 수송 인프라 구축 중
 - 이와 같은 에너지 프로젝트는 '26년 RRF 기금 지급 기한 마감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될 전망

에너지 부문 벨기에 내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투자 규모	EU 자금 지원	진행 단계	프로젝트 일정	한국 기업 기회
플랜더스 지역 수소 가치사슬 구축	(주정부) 7,500만 유로 (민간) 6억 6,200만 유로	0	계약 체결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21.1. ~'26.7.	
왈로니아 지역 수소 전환 프로젝트 투자	(주정부) 8,742만 유로 (민간) 7,813만 유로 이상 (공공) 1,000만 유로 이상	0	계약 체결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21.3Q ~'26.2Q	
프린세스 엘리자베스 섬 해상풍력단지 구축	(주정부) 1억 유로	0	계약 체결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22.10. ~'26.4.	
왈로니아 지역 에너지 분배 최적화	(주정부) 7,600만 유로	0	계약 체결 완료 프로젝트 진행 중	'24.1. ~'26.4.	스마트 그리드 네트워크 인프라

자료: NEXT GEN BELGIUM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BESS)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맞춘 고효율 ESS 공급 기회
 - 한국은 이차전지 및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성·효율성 검증을 마친 ESS 시스템 공급 경험이 풍부함
 - 현재 진행 중인 RRF 에너지 프로젝트를 모니터링하며, EU 조달 플랫폼*을 통해 현지 관심 기업에 접촉 가능
 - * 참고 : TED(EU 회원국 및 EEA 등이 발주하는 조달 공고 확인 가능, 벨기에 연방전자조달플랫폼, GOVEX(유럽 공공 조달 공고를 분야·지역·기업별로 필터링
 - 조달 참여 시에는 한국산 ESS의 안전성과 수명, 운영 효율성을 강조한 기술 홍보 및 실증 사례 제시를 통해 경쟁력 확보
- (그린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관련 기자재 조달 시장 공략
 - 설계·추진 중인 다수의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로, 수소 운송·수송 관련 설비(암모니아 터미널, 저장 탱크 등), 발전기 및 전력 변환장치 등 프로젝트 기자재의 진출 유망
 - 진출 시에는 EU 및 벨기에 정부의 RRF 기금, 재생에너지 보조금, 수소 네트워크 운영자 지정(HNO) 등의 제도를 활용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좋으며, 인허가 절차의 지역별 차이를 잘 파악하기 위해 현지 파트너와 협력하는 전략이 유리

전략 ③

한-EU 간 방위 협력 체계를 활용한 K-방산 진출 기회 모색



전략 수립 배경

- 우리나라는 '25년 9월 EU의 SAFE 기금에 신청했으며, EU 역내 국가에 이미 주요 방위 장비를 공급한 실적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음
- 다른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한국 방산 부품을 공급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관련 KOTRA 산업을 활용해 신시장 개척을 꾀할 수 있음

□ 현지 동향

- EU의 방산 투자 확대로 벨기에도 방위 분야 정책 강화 중
 -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로 EU 정책의 '25년 주요 정책 화두는 방산, '24년 EU 방산 지출 3,430억 유로(GDP 1.9%)에서 '25년 3,810억 유로(GDP 2.1%)로 증가 전망(유럽방위청)
 - 특히 벨기에는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목표를 '35년까지 5%로 확대하는 NATO의 방위비 증대 합의에 따라 향후 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전망
- 한국, SAFE 신청...EU 역외국으로서 EU 방산 시장 진출 가능 전망
 - EU 집행위원회 쿠빌리우스 국방담당 집행위원은 '25년 9월 11일 한국과 튀르키예의 SAFE 신청서를 받았다고 공식 확인
 - 현지 언론 Euractiv는 한국이 SAFE 최대 지원국인 폴란드에 이미 재무장을 위한 주요 방위 장비를 공급하고 있어, SAFE 가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SAFE와 한-EU 간 안보 협력 체계를 활용한 단계적 접근방안 모색
 - (초기) 벨기에 주요 방산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해 K9 자주포 부품, K2 전차 컴포넌트 등 기검증된 한국 방산 부품 공급 가능
 - 브뤼셀자유대학(ULB)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상시 가동 중인 생산 능력과 신속한 납기, 이중 용도 기술 경쟁력 등으로 유럽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 중
 - (중장기) 유럽 내 방산기업 및 국영 방위 공급기관과 기술 제휴 또는 JV 형태로 진입을 모색할 경우 규제 대응이 용이하며 승인 및 공공 조달 참여에도 유리
- MRO·운영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방위 체계 고도화 흐름에 편승
 - 향후 벨기에 내 군수 정비, 훈련 및 시뮬레이터, 군장비 업그레이드 및 통합 시스템 관련 서비스 수요 확대 예상됨
 - KODAS 등 방산 관련 KOTRA 대표 사업을 활용해 한국 제품에 대한 벨기에 바이어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장 진출 가능

전략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제반 사업 수요 공략



전략 수립 배경

- 생성형 AI와 GDPR 충돌로 정보 보안 시장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EU는 '25년 말 디지털 규제 간소화 패키지 출범 예정
- 한국의 ICT 강점을 활용한 사이버보안 솔루션, 중소 물류기업 대상 스마트 물류 시스템, GDPR 준수 원격의료 서비스 등 분야에서 현지 기업과의 협력 체계 구축이 유망

□ 현지 동향

- 생성형 AI와 EU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간 충돌 가능성, 정보 보안 시장 수요 확대 가능
 - '24년 5월 EU 데이터보호이사회(EDPB) Chat GPT 태스크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 개발과 운영에 GDPR이 전면 적용되며, 이는 모델 개발 및 운영 시 개인정보 영향 평가와 투명성·정확성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
 - 한편 벨기에 정부는 '21년 Cybersecurity Strategy 2.0('21~'25년) 채택을 통해 필수 서비스,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한 사이버 리스크 평가 및 보호 강화 조치를 추진 중
- EU,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규제 간소화 패키지 발표 예정
 - EU는 '25년 말까지 디지털 간소화 옴니버스(Digital Simplification Omnibus)를 발표할 예정이며, 데이터·사이버보안·AI 등 디지털 분야 법령의 절차 간소화 및 중복 규제 정비를 목표로 함
 - 절차 간소화를 통해 벨기에에서는 특히 헬스케어·공공서비스 부문에서 디지털 전환 수요가 예상되며, 핵심 산업인 물류 분야에도 수요 발생 가능
 - ▶ 벨기에 연립정부는 전 정부의 디지털화 방안을 유지 및 확대하고, 특히 디지털 헬스 부문에서 △ 원격진료 서비스의 제도적 정착 △AI 기반 의료 솔루션의 안전한 도입 △디지털 헬스 플랫폼 접근성 개선 등의 목표를 제시

□ 유망 품목 및 진출전략

- (사이버보안) 한국의 ICT 강점을 활용한 현지 납품 및 협력 체계 구축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ICT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서 다수의 진출 사례를 보유 중
 - 자체 개발 SW 납품과 함께 관리 인력 파견이나 전문 지식 전수를 통해 현지 기업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 (스마트 물류) 물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제공
 - 벨기에의 중견·중소 물류기업이 디지털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미 디지털 전환 중인 글로벌 물류기업과 연동이 가능한 물류 관리 시스템을 제공해 대형사 표준을 충족하면서 중소기업 대상 확산을 노릴 수 있음
 - 특히 구독형 물류 관리 시스템, 사물인터넷 기반 화물·콜드체인 추적 시스템, 경량 창고 자동화 솔루션 등을 현지 기업에 제공 가능
- (의료서비스) 원격의료 수요 증가 전망, EU 규제 준수는 필수
 - 벨기에와 EU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원격 모니터링 기기와 플랫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생활습관병 예방·관리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진출도 유망
 - 의료 SW 현지 진출 시에는 소프트웨어가 EU의 GDPR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데이터 보호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해 두어야 함



여과기 및 정수기

- 선정사유**
- 플랜더스 지역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자원 부족 심화 증가에 따라 플랜더스 정부 차원의 블루딜(Blue Deal) 프로그램을 추진 중
 - 엔트워프 항만은 유럽 최대 화학·정유 단지 중 하나로 담수 절감 및 폐수 재이용 설비 수요 집중
 - EU 차원 순환경제, 물 자원 효율성 정책에 부합
 - 연간 9백만㎥ 절감 목표로 고성능 정수·재이용 설비 필요
- 경쟁동향**
- 프랑스·네덜란드·독일 기업들이 폐수 재이용, 정수 처리 분야에서 시장 우위 선점
 -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 글로벌 환경 기업이 플랜더스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 높음
-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이 보유한 고도 막여과·정밀여과 등 기술 및 에너지 효율성 펌프·배관 기술 수출 유망
 - 플랜더스 내 EPC 또는 환경 엔지니어링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입찰 또는 패키지 솔루션 제공

배터리 에너지 저장시스템(BESS)

- 선정사유**
- EU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ESS) 구축을 핵심 인프라로 추진 중
 - 풍력·태양광 비중이 높은 벨기에 전력망에서 주파수 조정, 피크 저감, 예비 전력 확보 수단으로서 수요 급증
 - EU RepowerEU, EU 청정산업딜 및 벨기에 국가 에너지·기후계획(NECP)에서 저장시설 확대 명시와 같은 정책 지원 강화
- 경쟁동향**
- TotalEnergies, EDF, RWE 등 발전-저장 통합 모델을 통해 유럽 에너지 대기업의 자체 투자 증가
 - 대형 프로젝트는 EPC·통합 솔루션 위주로 발주, 모듈 제조사는 하도급·파트너십 형태로 다수 참여하여 기술 규모 경쟁 심화
- 진출방안**
- Horizon Europe, Innovation Fund 등 EU 지원금 활용하여 초기 진입 리스트 완화
 - 대규모 유틸리티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므로, 중·소형 BESS, EV 충전 인프라 연계형 ESS, 산업용 피크 저감형 ESS 등 틈새시장 공략

냉각 열관리

- 선정사유**
- 벨기에 디지털 인프라 협회(BDIA)의 신규 보고서 따르면, '25년 벨기에 데이터 센터 시장이 50% 성장 전망
 - 현재 벨기에는 구글의 최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캠퍼스 중 하나를 보유 중이며, 두 번째 캠퍼스 건설 중
 -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도 벨기에 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해 '25년 가을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브뤼셀 수도권 내 서로 다른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세 곳의 별도 코로케이션 시설에 데이터센터 화이트 스페이스 구축 중
 - 이에 따라 '25년 기준 벨기에 데이터 냉각 시장은 약 5억 8천 달러에서 '31년 21억 4천만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경쟁동향**
- Schneider Electric, Vertiv, STULZ 등 글로벌 HVAC·쿨링 기업들이 다양한 냉각 기술 (공랭, 수랭, 첨단 냉매 등)과 같은 서비스 네트워크 기반으로 시장 주도
 - 현재는 공랭 기반 솔루션이 주류지만, AI·고밀도 컴퓨팅 환경을 위한 액체 냉각 수요가 빠르게 증가세
 - 벨기에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은 EU의 환경 규제와 에너지 효율 강화에 따라 친환경 냉각 기술 (저GWP 냉매, 프리쿨링 등)에 대한 수요 증가
- 진출방안**
- LCL, Datacenter United와 같은 현지업체들과 직접 협력하여 프로젝트 진행
 - CE 인증 및 F-gas 규정과 같은 EU 인증을 미리 확보하고 EU 규제 준수

방산 관련 품목

- 선정사유**
- 벨기에 정부는 '25~'29년까지 국방비를 GDP 2%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33년 이후에는 2.5%까지 확대 검토 중(기존 70억 유로 → 128억 유로)
- 경쟁동향**
- 벨기에 정부는 NATO 핵심 항공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F-35 도입 확대
 - 프랑스 및 벨기에 합작으로 개발한 VBMR Griffon 장갑차 382대 주문, 60대 EBRC 재규어 차량 포함하여 15억 규모 'CaMo' 프로그램에 포함
 - 벨기에는 프랑스, 독일, 미국 업체와의 협력이 전통적으로 강한 성향 보유
- 진출방안**
- 벨기에는 F-35 등과 같은 항공전력을 강화 중이지만 정비·부품 훈련 체계 분야는 부족
 - 이에 따라, 현지 파트너와 합작하여 F-35, 헬기, 장갑차 서브 부품 창고 및 정비소 벨기에 내 구축
 - VR 기반 조종사 및 정비병 훈련 시뮬레이터 수출
 - 또는 ICT 기반 '부품 추적·정비 관리 솔루션' 제안

섬유 폐기물 재생유화 장비

- 선정사유**
- EU 순환섬유 전략에 따라 '25년 1월부터 섬유 폐기물 별도 수거 의무화 시행
 -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적용돼, 제조사 및 수입사가 회수·재활용 비용 부담
 - EEA 브리핑에 따르면 EU는 매년 약 670만 톤의 섬유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그 중 아프리카 및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높아 앞으로 역내 재활용 설비 확대 필수
- 경쟁동향**
- 벨기에의 세 지방정부 모두 각자 순환경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과 순환 경제 전환, 소비자 인식 변화, 첨단 재활용 기술 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 이에 따라 Valvan라는 벨기에 기계 제작사는 자동 섬유 분류 장비 개발, ANDRITZ는 자동 분류 기술 중심으로 재활용 공정 솔루션 출시, REDWAVE는 정밀 분류 기술 등 섬유 분리 및 준비 공정 자동화 시스템 출시
- 진출방안**
- 벨기에에서 열리는 Textile Recycling Expo 등 주요 행사 참여를 통해 시장 노출 강화 및 파트너십 기회 모색
 - 유럽 트렌드를 반영해 AI 기반 자동 분류, 디지털 트윈 통합 솔루션 개발 및 출시
 - Valvan과 같은 벨기에 내 기술 기반 업체와 제휴 또는 공동 개발을 통해 현지 맞춤형 솔루션 구축



[콘텐츠, 교육] K-콘텐츠 & 에듀테인먼트

- 선정사유**
- 벨기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팝, 드라마, 웹툰 등 한국 콘텐츠 소비가 빠르게 확산 중
 - '23년 6월 브뤼셀에서 열린 K-팝 페스티벌에는 약 4만 7천 명 이상이 참여해 한류 콘텐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줌
 - 또한 영어·프랑스어·네덜란드어 등 다국어 기반 교육용 콘텐츠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K-콘텐츠를 활용한 에듀테인먼트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 유망
- 경쟁동향**
-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 기업이 현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벨기에 현지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K-콘텐츠는 한류 팬덤을 기반으로 한 틈새시장 공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진출방안**
- K-팝·드라마 기반 온라인 교육·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웹툰·애니메이션을 다국어 플랫폼과 연계하여 교육·오락 결합형 서비스 제공
 - 한국문화원·세종학당 등 현지 교육기관·문화센터와 협력해 K-컬처 기반 에듀테크로 진출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 선정사유**
- 벨기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로, EU 차원에서 원격의료 및 헬스케어 디지털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25년 벨기에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약 7억 5,450만 유로 규모로 평가되며, 연평균 성장률은 7.1%로 전망됨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진료와 건강 모니터링 솔루션 수요도 크게 증가
- 경쟁동향**
- 현지에서는 Proximus(통신), UCB(제약)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독일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제(GDPR)와 의료기기 인증(CE 마킹) 등 현지 시장 진입에 필요한 인증이 존재함
- 진출방안**
- 한국형 원격진료 플랫폼 및 건강관리 앱을 현지 병원·보험사와 협력하여 도입
 - 보안 중심 솔루션 개발을 통해 GDPR 대응 및 신뢰성 확보
 - EU Horizon Europe 등 보건 연구 펀딩 프로그램을 활용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 참여

[물류, 플랜트] 스마트 물류 & 친환경 운송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는 로테르담·앤티워프 항구를 기반으로 한 유럽의 대표적 물류 허브 국가로, 약 11만 6천 명이 고용되어 있고 1만 8백 개 기업이 물류·운송 사업에 종사 중 • EU 그린딜 정책 추진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운송 및 디지털 물류 솔루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벨기에는 온라인 소매업체에 친환경 배송 옵션을 의무화한 유럽 최초 국가라는 특징도 있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HL, Kuehne+Nagel 등 글로벌 물류기업이 친환경 운송망과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 중견·중소 물류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및 탄소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스마트 물류 IT 솔루션(AI 기반 수요 예측·경로 최적화 등) 제공 •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 등 친환경 운송 및 플랜트(공장) 분야 협력 추진 • 한-벨기에 공동 연구 및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EU 규제 대응형 물류 모델 구축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벨기에 지역 KOTRA 주요사업

무역관 명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해외 진출	EU 주요 통상 규제 설명회	연중/벨기에 브뤼셀
수출마케팅	소비재 분야 수출 상담회 및 인증 설명회	2분기/벨기에 브뤼셀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키프로스-EU 이사회 의장국	1~6월	
아일랜드-EU 이사회 의장국	7~12월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전기화 행동계획 및 유럽 그리드 패키지 발표	1분기	
유럽 그리드 패키지 발표	1분기	
해외 보조금 규정 가이드라인 발표	1분기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절차 전반 가이드라인 발표	7월 26일	
순환경제법 발표	4분기	
핵심원자재 전담센터 설립 발표	4분기	
청정 부가가치세 이니셔티브 발표	4분기	
공공 조달 지침 개정(비가격 기준 포함)	연 중	
표준화 규정 개정	연 중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벨기에 코르트레이크 자전거 전시회 (Velofollies Belgium)	1월 16일~18일	KORTRIJK XPO
벨기에 브뤼셀 유럽 우주 포럼 (17th European Space Conference)	1월	브뤼셀 Square
벨기에 브뤼셀 Estetika 뷰티 박람회	3월 7~8일	Brussels Gate
벨기에 브뤼셀 메이드 인 아시아 (Made in Asia)	3월, 10월	연 2회(봄, 가을) 개최 Brussels Expo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벨기에 브뤼셀 Bike Brussels 전시회	3월 13일~15일	Gare Maritime
벨기에 브뤼셀 섬유 재활용 박람회 (Textile Recycling Expo)	6월 24일~25일	Brussels Expo
벨기에 겐트 식품 전시회 (Horeca Expo)	11월	겐트 Flanders Expo
공공 조달 지침 개정(비가격 기준 포함)	연 중	
표준화 규정 개정	연 중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강지숙	차장	브뤼셀무역관	+32-2-205-0089	kjs@kotra.or.kr
2	유지원	과장	브뤼셀무역관	+32-2-205-0084	ji1.yoo20@kotra.or.kr
3	송지현	과장	브뤼셀무역관	+32-2-205-0085	jhsong_a@kotra.or.kr
4	김도연	Senior Specialist	브뤼셀무역관	+32-2-205-0087	inji.sim@kotra.or.kr
5	심은정	Senior Specialist	브뤼셀무역관	+32-2-205-0082	doyeon.kim@kotra.or.kr
6	윤웅희	Specialist	브뤼셀무역관	+32-2-205-0083	unoin@kotra.or.kr
7	황준혁	Specialist	브뤼셀무역관	+32-2-205-2142	jh10534@kotra.or.kr

2026 벨기에 진출전략



ISBN : 979-11-402-1498-3 (95320)